朝鮮日報
夕刊 九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大同小異의 英佛伊三國案 日本만孤立狀態

列國共同戰線으로日本에强要 列國提案과그內容

【倫敦八日發同盟】第一委員會는 八日午後三時十八分(日本時間九日午前零時十八分) 크라렌스하우스四層會議場에서 開會하엿다 永野、永井兩全權은 岩下專門委員等을帶同하고 建艦通告案을 徹底的으로 排擊할 決意를 眉宇에 暗示하면서 議場에 臨하엿다

議長몬셀卿이 開會를 宣한後 英國政府의 建艦通告案을 提示하고 刻下의 情勢에서 同案을 採擇하는 以外에 建艦競爭을回避할 方策이 업다는것을 强調하엿다 英國政府의 提案要旨는 如左하다

▲第一部通告의時機

一、締約國은 每會計年度初一個月以內에 向後一個年間의 建艦計畫을 他의 締約國에 通報할것

一、締約國은 建艦計畫에 따라 現實로 龍骨据置에 着手할것과 建艦完了日을 通報할것

▲第二部通報의項目

一、締約國은 左記細則事項을他의 各締約國에 通報할것

가、向後一個年間의 建艦計畫에 包含된 艦名、噸數、備砲、魚雷發射管裝甲

나、龍骨据置日及 艦艇의 種別 噸數 米突式噸에 依한基準排水量 平均吃水最大備砲口徑

다、竣工日及 前記細目

이어서 佛國代表도 獨自의 起工通告案을 提出하엿는데 骨子는 前後兩篇으로되어잇는데 如左하다

前篇

締約國은 全혀 自立的으로 ○年間의 建艦을 宣言할것(年限은 白紙로하야 締約各國의 事情에 應하야 適宜히 年限을 決定할것)

後篇

一、締約國은 龍骨据置前 적어도 六個月前에 起工艦艇의 細目을 通報할것

一、通報範圍는 戰鬪艦、巡洋艦、驅逐艦、潛水艦의 各艦種別艦型裝備等으로함

一、右通報는 一個年을 限度로 하야 締約國을 拘束할것

또 伊太利代表도 또一個年을 限度로한 通報案을 提示하엿다 提案內容은如左하다

一、締約國은 國防上 必要한海軍力을 整備할 完全한 權利를享有할것

一、締約國은 會計年度初一個月以內에 建艦計畫을 他締約國에 通報할것

一、通報에 關聯하야 어떠한困難 乃至問題의 通報를 해온境遇에는 締約國은 協議를遂할것

一、通報範圍는 各國의 建艦能率에 應하야 某程度의 融通性을 認定함

建艦通報案에 關한 日本政府의 決意를 闡明하야 如左히 强調하엿다

一、建艦通報案은 軍備縮少의 本質에서 보면 單히 第二義的事項에 不過하야 倫敦、華府兩海軍條約에서도 量的制限案에 對한 附隨條項으로 列擧되어잇는데 끗첫다

一、적어도 軍縮의 成果를 期待하는以上 꼭 量的制限案의 達成을 圖하는것이 第一義이다 量的制限案에 關하야 審議할 提案이 업스면 再次日本政府의 共通最大限案을 審議하기바란다

永野全權의 發言이 끗나자 英米佛伊四國代表와 自治領代表는 果然 一齊히 通報案擁護의 戰線을 펴고 通報案은 量的制限案의 一半에 不外하다 구태여通報案을 拒否할 理由가 업지안느냐고 永野全權에게 肉迫하엿는데 永野全權은 끗까지 量的制限討議를 頑强히 固執하엿다 그런데 討論이 紛糾할것을 알아채린 議長몬셀卿은 드듸어日本代表는 建艦通報案의 討議에參加치안흘것을 諒解한다는 旨를宣言하고 右諒解下에 十日午後三時十五分 第一委員會를 開하자는 動議를 提出하야 滿場異議업시 可決되어 一時間二十八分後 午後四時四十六分에至하야 第一委員會는 散會하엿다 第一委員會는 建艦通報案에 關하야 討議하엿스나 何等 具體的討論에 到達치안햇다 同案은 흐지부지될것이라고 觀測된다

局面打開次로 英、私的會談要求

日本側의旣成方針固執으로 會談成果는依然難期

【倫敦九日同盟特派員發】建艦通報案을 圍繞코 第一委員會는 重大局面에 逢着하엿는데 英國政府當局에서는 急遽 協議한結果 爲先 日本全權團과의 私的會談에 依하야 局面打開를 圖하기로 決定하야 八日午後七時 日本全權團에 對하야 私的會談을 要請해왓다 日本全權團에서는 即時 應諾하야 會談은 九日午後四時부터 아마 英國外務省에서 擧行되게되엇는데 日本全權團에서는 永野、永井兩全權外에 特히 岩下主席委員以下가 出席하고 英國政府에서는 海相몬셀卿 채트필드軍令部長 크레키參事官外에 特히 이든外相도 參席하야 日本全權團說破에 努力하리라고 解釋된다 但 日本全權團에서는 既定方針을 堅持하고 量的制限案以外에 建艦通報案 討議에는 一切 應치안흘 方針이므로 會談에 依하야 特別히 顯著한 展開는 期待되지 안흐나 如何든 第一委員會의 今後行事日程은 이 會談으로 決定될것이다

外交部次長에 曾仲鳴氏內定

【上海八日發同盟】徐謨氏의 後任으로 前鐵道部次長 曾仲鳴氏로 內定되엿다 同氏는 汪精衛派의 重鎭으로 南京政府部內에잇서서 汪派의 陣營을 守護하는 最後의一人이다

話題解說

AAA

◇去六日 米國聯邦大審院判決의 結果 AAA가 無效로 되엿다하야 米國社會에 一大衝動을 주엇슴은 勿論 멀리 太平洋越便인 極東方面에까지 적지안흔 센세이슌을 捲起하엿다。그러면 AAA란 무엇이며 AAA의 無効判決로 米國內 및 國際經濟界에 波及하는 影響은 어떠한것인가?

◇AAA는 (Agricultural Adjustment Act)라는 三單語의 처음글字 A를 떼여낸 略稱으로 우리말로 翻譯하면 農業調整法이라는 意味가 된다。이 農業調整法은 NRA 即 產業復興法과함께 루즈벨트大統領의 新政策(New Deal)의 根幹的 二大支柱를 形成하는것으로 現政府의 重要한 農業政策임은 勿論이다。

◇AAA의 主要目的은 農產物의 價格維持에 잇거니와 이 目的을 爲한手段으로 루즈벨트政府는 AAA를 通하야 作付減段을 統制하고 減段한 農民에 對하야는 補償金을 給與하게 되엿는데 이補償金支拂을 爲한 財源으로 農產物加工稅를 徵收하게되엿다。그런데 이番事件은 루이지아나州 一精米業者가 이 加工稅를 支拂치안흔데 對한 聯邦政府의 强制徵收에 對하야 提訴된것이며 大審院에서는 加工稅는 憲法違反이라는 理由로 原告의 勝訴로 判決을 내린것이다。

◇이判決의 結果는 精米業者의 加工稅問題에 끄치지안코 農業統制 그全體에 影響이되게되므로 루즈벨트政府의 農業政策이 破壞되야 全米農民에게 重大影響을 波及케되는同時에 그로因하야 米棉作付減段에 依한 生產制限의 緩和로 米棉(原料)購入에 依賴하는 日本에잇서서도 그波及되는 影響이 적지안흘것도 容易히 推測할수잇는가 한다。

佛海軍大演習과 英佛協力의實現化

「地中海戰略에 無異狀」

【倫敦八日發電通】佛國西海軍省當局은 八日 地中海艦隊의 大演習을 行함을 發表하엿다 此에 呼應하야 푸르트號 라미리스號等 英本國艦隊主力艦의 地中海擔當을 決定한結果 英佛共同作戰은 드듸어 現實化를 遂하게되엇는데 英海軍省當局은 英佛兩國艦隊移動은 伊太利海軍의 攻擊에 備하야 英佛兩國政府의 共同作戰에 不過한다를 示唆하야 八日夜如左히 言明하엿다

佛艦隊는 一月末부터 카사브랑카沖에서 大演習을 擧行하게되엿는데 同艦隊는 當分間 지부랄타르沖附近을 離去치안코 英艦隊의 援助가 必要한 境遇에 곳部署에 就하야 地中海方面과의 連絡을 確保할터이다 푸르트號、라미리스號等本國艦隊所屬의

英政府代辯者談

【倫敦八日發電通】英佛伊艦隊 驅艦艇若干이 本國에歸還하나 右艦艇은修理와乘組員에 休暇를與할것으로 此等撤退로 지부랄타르方面의 英國海軍力에 戰略的變化가生할일은萬無하다

南京會議에對한 重要對策決定

新大使決定後折衝

【東京電話同盟】廣田外相은 新任駐中大使에 對한 重要對中方針을 確立하고자 八日午後一時 省內에 會議를 開催하고 津島次官、桑島東亞局長、守島第一課長、須磨南京總領事를 招致하야 同四時에 至하기까지 南京會議對策에 關하야 愼重協議를 거듭하엿다 그리고 須磨南京總領事는 有田大使가 歸國한다음 다시 充分한 協議를 遂하야 大體 來十七日頃 南京에 歸任하야 日本의 南京會議對策을 有吉大使에 傳命해서 南京會議開催에 對한 事前準備工作을 開始할터로 南京會議는 日本의根本主張이 認定되는限 三月前後新大使 有田八郎氏와 國民政府外交部長張群氏間에 開催될터인바 日本側은 有田大使와 張外交部長과의 外交機關에依한 交涉을 中心으로 其他陸海軍駐在武官 在中銀行家代表等을列席시키기로되엇다 그리고 八日의外務首腦部會議에서 決定된日本의 南京會議對策의 大要는如左한것이라고 確聞된다

一、南京政府는 日中國交會議의 成果를 거두기에 充分한和親的空氣를助成하야 排日抗日의 惡氣流一掃에努力하라

一、南京政府는 南京會議의 目的을 闡明케할 立場에서 日中兩國間에 進行될 會議議題의 範圍를 分明케하고 이具體案을 提出하라

一、日本側은 中國側이 南京會議開催에 對한 充分한 熱意와 抱負를 示하는데잇서서는 南京에서 日中一般國交關係調整交涉을 開始할 最善의 努力을 할것이다

重大難局에際해 擧國的支援要望

永野全權所信披瀝

【倫敦八日發電通特派員】八日第一委員會散會後 宿舍에歸한 永野全權은 곳永井全權以下首腦部와 今後의方針에 關하야協議를 遂한後 如左히말하엿다

吾等은 共通最大限이 先決問題임으로 開會初에說明하고 量的限制를要求하야 列國도此를諒解하고 量의數字에 入하엿던것이다 그러나 二週間을經過한今日에 見하면 처음問題가 풀리지 안는다고 둘재問題에 着手하고 둘재問題가 헛드나고 셋재問題에着手하는등 쓸데업시 時間을 보내고잇다 英佛伊가 各各軍縮案을提出한다기에 諒聽하려한즉 例의 建艦通告案! 吾人은 하도 기막혀 今日會議에서는 率直히 참으로軍縮을 하여보자고 反省을促하엿다 吾人은 第一 重要한 問題가 決定되지안흔今日 其他는 斷然 拒否안는수밧게업다 이點은 本國의國民은 이미 充分히 알고잇슬것이다 我代表部로부터 諸君에(日本記者團)對하야 明日 그經緯를 詳細히 說明하게되엿다 다음會議는 十日인데 招請國인 英國이 어지할는지 모르나 會議의 道程은 自進하야邪道를 것는重大한 難關에 逢着한것은 疑心업다 吾人은 世間의 思惑이라든가 一時的의 歡呼한 事情等에 拘泥치안코 正義에 立脚하야 斷乎히 信念을 一貫할뿐이다 此際에 特히 擧國一致의 支援을 어더 勇往邁進할 決心이다

人事·集會

▲宇垣總督 九日午後六時半부터 官邸에 小磯軍司令官 佐枝參謀長以下 軍首腦部를 招待코 新年晩餐會開催

▲渡邊學務局長 熊本에歸省中이던바 豫定을 당겨 九日午後三時二十分着赴任

八面錄

◇地方稅制를 改訂하야 自治均衡을 圖한다고。

◇日、道稅에 三種附加稅의 新設、戶別稅、家屋稅의 全般的實施。

◇日、府稅에 鑛稅、戶別稅、不動產取得稅의 附加稅 實施。

◇日、邑面稅 所得稅의 增率。

◇日、學校費의 一戶當十錢引上

◇이러고도 果然 增稅가 아니고 自治均衡?。

◇初步校擴充十個年計畫 發表된 日 每年 千學級을 늘리어 學齡兒童의 六割을 收容한다고

◇就學生 數爻가 늘어가니 반가운 消息이나 二年制의 簡易敎育도 初等敎育이라 할가

◇六年制에 依한 普通學校의 普及、學齡兒童의 百%收容이 初等敎育의 最少限要求。

明十日로써 會議는決裂?

【倫敦八日發同盟】永野全權이 建艦通報案에 反對를 表明한結果 議長몬셀卿은 永野全權의 反對를 議事錄에 너컷다는 宣言을 하야 八日午後의 第一委員會는 波瀾을 包含한채 散會하엿는데 英國政府最後의 案인 通報案成立의 可望이 稀薄하야 海軍少本會議는 지금 드듸어 終幕에 가까워진 感이 깁다 英國代表部에서는 日本全權其他各國代表等과 議事手續에 關하야 折衝을 遂하고 局面打開策에 關하야 最後의 努力을 傾倒하리라고 豫想되다 右手續에 關하야 各國代表間에 意見이 一致되지안흘境遇에는 第一委員會는 十日午後三時十五分부터 열릴 會議에서 量的制限案을 對象으로 討議할는지 그與否의 重大方針을 決定하리라 그런데 萬一 委員會가 日本代表部의 態度에 依하야 量的制限案의 討議를 認定키 難하다는 結論에 到達할 境遇에는 永野全權은 아마 會議脫退도 不辭한다는 日本政府의 決意를 宣明할 方針이라고 解釋되므로 會議는 事實上 十日로써 終幕을 告할것이 아닌가 觀測된다

日本을除外하고 建艦案을審議?

英米佛伊代表秘密裡私的會談 軍縮會議遂緊迫!

【倫敦八日電通特派員發】英、佛、伊代表部의 提案에 依한 建艦計劃三案은 方今 各各 多少의 修正을 加하야 極히 近接된 內容을 가지게되여 今後의 會議의 主流는 本問題에 集中될 形勢에잇는바 不脅威不侵略의 原則을 堅持하고 實質的軍縮을 目標로한 日本代表部는 質的制限만으로써 量的에는 現行比率을 强要하려는 右案에 對하야 反對態度를 取할것은 當然히 豫想되는바인데 이리하야 日本이 同問題의 審議續行을 拒絶하거나 또는 軍縮會議로부터 脫退할境遇에 依然 建艦宣言案을 中心으로 日本을除外하고 英米佛伊의 四個國으로써 會議를續行할 可能性에 關하야 이미 各國代表部間에 極秘裡에 私的意見交換을 行하엿다고 解釋된다 따라서 日本을除外한 四個國間에는 자못表面化하지아니한 그무엇을 가지고잇는모양으로 英이 主催國인 立場에서 힘써 이사이의 空氣緩和에 努力中이나 英國의 態度도 亦是 如何한 變化가 생길는지알수업슴으로 會議는벌서緊迫狀態에 다다른 것을 보하고잇다

英米에頻繁한 代表無視策戰

【倫敦八日電通特派員發】八日의 全員委員會는 豫想대로 建艦計畫案을 圍繞코 日本과 英、米、佛、伊의 四個國의 對立을 生하야 重大한 局面에 逢着하엿는데 日本代表部는 英米가 如斯한 時期에 쓰는 常套手段인 本國政府와의 直接交涉이란 新手段을 取하야 日本의 軍縮主張을 全然 別角度로부터 壓迫하려는 作戰을 取할것이아닌가고 생각되는 故로 最近 情勢에서 警戒中이다 即 華府會議當時에 佛國首相브리안氏가 國內事情으로 歸國한後 사로氏가 代로 全權이되어 英米에 對하야 强硬態度를 取한때 英米兩國은 서로짜고서 佛國代表部를 無視하고 巴里駐在外交機關을 動하야 直接 브리앙氏와 交涉한前例가잇고 또 倫敦會議當時에 難關에 逢着한때에 米國은 駐日大使 캣슬氏로하여금 또 英國도 그때의 駐日大使를 通하야 共同하야 直接 日本政府에 壓迫하며 小康을 取한 事實이 잇스므로 今回도 亦是 日本全權을 無視하고 直接 東京政府에 訴求를 試하려고 企圖할 念慮가 잇다고 解釋되어 會議停頓必至의 情勢에 鑑하야 極力 此種策謀에 警戒中이다

英伊關係好轉?

地中海艦隊一部撤收

【倫敦八日發同盟】英國政府는 英伊兩國紛爭을 圍繞코 地中海의 情勢가 急迫하는同時에 世界無比를 자랑하는 海軍의 精銳百五十餘隻을 地中海에 集結하야 伊軍을 牽制하엿는데 八日에 至하야 突然 艦隊의 一部移動을 發表하엿다 勿論 發表에는 地中海로부터 撤收한다고 明言치안햇스나 前後의 事情을 察하야 艦隊一部가 地中海로부터 撤收하는것은 當然한 歸結이라고 解釋되어 英伊兩國間의 關係도 어떠한 變化를 招來하엿다고 觀測되다 海軍省當局의 發表內容은 如左하다

戰鬪艦피리아스 巡洋艦카이로號 航空母艦넬손號、로드네號 第二十一驅逐隊 共히本國艦隊의 一部는 例年의 慣例에 基하야 一月中旬부터 順次 巡洋航海에 出發하기로 決定하엿다 同時에 本國艦隊의 戰鬪艦 폿드號、라데리스코號巡洋艦오리판號、네프치號를 本國에 廻航케한다

米、主力艦代艦建造計畫決定

軍縮會議成果難期에鑑하야 스완슨海軍長官言明

【華府八日發電通】米國海軍長官스완슨氏는 八日 如左히 米國의 主力艦代艦建造計畫은 倫敦軍縮會議의 推移를보아 이것을 決定하겟다는 旨를 言明하엿다 倫敦軍縮會議가 建艦通告案을 圍繞코 日本對英米佛伊四個國의 對立을 示하게되엇다고 報道되고잇는 이때에 如斯한言明을 한것은 特히 注目된다 스완슨長官의言明要旨는 如左하다

米國은 主力艦建造計畫의 決定은 倫敦軍縮會議中에는 이것을 保留하려는것으로 萬若 英國과 日本이 이建造를 開始할 境遇에는 米國으로서도 同樣으로 右建造에 着手하게 될것이다

汰沽事件重大化

川越總領事嚴重抗議 同時에重大要求提出

宋政權運命에도影響

【天津八日發電通】汰沽事件에對하야 川越總領事는 八日午後 公文書로서 宋哲元氏에對하야 嚴重抗議하는同時에 左의要求를 提出하엿다

一、河北省首席及 第二十九軍長으로宋哲元氏의 陳謝

一、汰沽에在한 第二十九軍과 公安局責任者의罷免

一、犯人即時逮捕及 處罰

一、損害賠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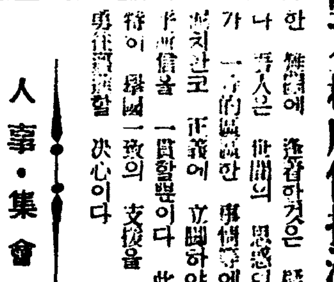
一、第二十九軍及 各地公安局責任者에對하야 一切의 侮日行爲를 停止하도록 嚴重訓示할것

一、將來의 保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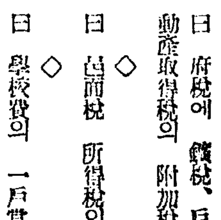
그리고 以上의抗議는 事前에 駐屯軍과 協議된것이라고 解釋되는데 將來의保障에關하야 第五項의 每日行爲의停止訓示에重點을두엇는데 宋哲元氏가 誠意로서 對處할는지 안할는지는 宋哲元氏政權의 運命에도 重大한影響이잇다하야 注目되여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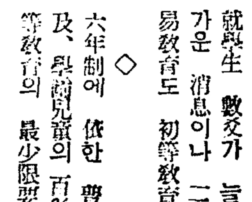
共軍、海賊과結托 宿望의海岸獲得

【福州八日發同盟】福建省東北部의 共產軍은 北寧로完成을 爲하야 海賊團과 協力工作을 開始하야 浙江福建兩省省境海岸地域一帶의 人民을 極度로 不安케하고잇다 共產軍과 合流한海賊團은 最近 豐富한 食糧과 武器彈藥을 共產軍에게 供給하엿다고 하므로 海岸線獲得에 몃번이나 失敗한 共產軍도 드듸어 有力한 海賊과의 連繫로 多年의 希望을 達成하게되어 今後의 南中赤化工作은 一大進展을 示할터로 따라서 福建省政府는 海陸兩軍을 總動員하야 防備에 努力하기로되엇다

命中正確 强力彈大 空氣銃

アイデ ナイデ
合名會社 常盤銃砲店 大阪市南區

店內陳列設備あり
揃荷子帽子夏春
屋商 ⓐ 子帽
稻村益商店
大阪市東區南本町四丁目心齋橋筋
電話船場 2121番 振替大阪 20930番

商店に限り型錄進呈
製繩機

報德商會本店 大阪

印刷機 製本機械材料製造直賣

各官廳新聞社御用達 大阪優良品同盟會員
創業以來四十年 支店 東京、新京
新聞業者には說明した案內書進呈
牧瀨商店大阪本店

鞄 學生カバン 旅行鞄 製造卸商
カタログ呈 郵券五錢要
大阪市西區南堀江壹番地一九
津田鞄商會 電話櫻川六六二五番

印刷物經濟化!
太陽卓上 石版印刷器
이것이다! 마음대로宣傳印刷物이印刷된다
事務에商戰에敎育에 社交에理想的인本器를推獎
特價五圓부터特約店急募 (型錄進呈)
大阪市日本橋四丁目 太陽商會 電話 一五三三

壯大妖美冒險怪奇世界最大의スペクタクル―トーキー
SHE
洞窟의女王
R·K·O라디오超大作映畫 ● 巨匠미리암·C·쿠파―製作
娛樂映畫의 絕對帝王篇
아빙피치엘·엘시포덴協同作品
헤렌·가헤겐 主演
R·K·O라디오超特作映畫
마음의傷處
캐사린·헵편主演 샤루르·뽀아이에 필님메라監督
헵편과·뽀아이에의놀내일名演技劇
團成社 十日封切

ネオトントニク
召せ! 世界の强壯劑
强く健やかなれ!
韓洋行

新學期
京城外國語學院 新入生募集
外語部‖中語、英語、獨語、佛語、エス語(初、中、高等)
開學一月十日 京城授恩洞百十一

國產 カッピー白粉
카 피 가 루 분

潑溂한 美의感激
美的香氣 굉장한感觸
이一品이야말노 당신이 늘憧憬하고잇는 化粧美를 한업시表現식힌 世界的逸品이다
個個의性格에 꼭맛는 標準色七色 大型 小型
良品은빗난다 豐香園製品
東京牛込 本舖 田端 香園

虐待로呻吟하는 五千餘名어린이

十二年度부터實施할兒童虐待防止法

準備調査結果判明

총독부 사회과에서는 십이년도부터 아동학대방지법(兒童虐待防止法)을 실시하려고 이에관한 조사준비를 거듭하고잇서 작년십일월말일 현재의 각도아동학대상황을 조사중이든바 최근에 모힌 십도의보고에의하면 학대아동총수는 실로 사천오백 이십팔명의 다수에달한다는 수자가 수집되엿다고한다

그리하야 아직 보고하여오지안흔 강원도 충북 함북의세도를합하면 오천명을 돌파할터이라는데 그중에서도 비참한학대를 밧고잇서 곽청에서 수용하야 보호할 필요가 잇는것이 삼백이십오명의 다수에달한다 그리고 각도별로보면 다음과갓다

(括弧內는 收容保護必要) ▲京城 三六(一六) ▲忠南 三〇(一〇)
▲全北 九六三(八四) ▲全南 一、〇三九(一三三) ▲慶北 四〇三(一〇三) ▲慶南 七六六(一八) ▲黃海 一四〇(二三) ▲平南 一三三(一一) ▲平北 五六(一) ▲咸南 一五五(一八)

이것을보면 아동학대가 가장만흔곳은 전남이고 그다음은 전북이며 경남、경북의 순서로남조선지방에 만코 서북조선에는적은것이 주목된다

收童慘殺强盜上告

작년구월이일에 경북 달성군월배면진천동(達城郡月背面辰泉洞) 사는 고상룡(高相龍)의 의자(義子) 박호생(朴好生)이라는열두살먹은 아이를 그고을 화원면대곡동(花園面大谷洞)산중으로 꾀여데리고가서 그아이를 허리띠로써 목을졸라죽이고 그아이가 품에기려몰고갓던 황소(팔십원짜리)한머리를 빼아서다가그 처소장에가서 오십사원에 팔아서 주색에 허비하여버렷다는 달성군월배면상동(月背面上洞)사는 박작지(朴作之)(二〇)는 작년십이월십팔일에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로 사형판결을밧고 또공소하야 작년십이월이십삼일에 대구복심법원에서도 사형판결을 바덧는데 구일에 고등법원으로 또상고해왓다

社還米制擴充에 內務當局은反對

邑面의財政이不許한다고

農村으로는重大問題

농사지을 량식을 꾸어주는제도(사환미=社還米)는총독부의 농민에게 식량을 꾸어주는제도인데 농림국과 각도농무과에서는 점점 그 확충계획을 진행하고 잇는데 이계획은 읍(邑) 면(面) 재정문제와의사이에 차집이 생겨서 내무국에서이확충을인정할수업다는관계에이르럿다 이것은 농량대부제도는 읍을 사업주체로한 관계로이것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때는 미곡가격이 순조로 유지될때에는 가타하드라도 가령미곡가격의 반동긔를 맛나면별안간에 손실이 생겨서 이손해는곳 읍면재정이 위태하게되는일이적다할수 업스므로 이점으로보아 내무국지방과에서는 농량제도의 확충에반대하고잇다한다

平澤서汽車衝突한 無免許運轉手被捉

【仁川】시내화방정(花房町)림업상점(林業商店)운전수 림주문(林周文)(二一)은 지난팔일평택을 떠나 인천으로향하야 오든도중 대는오전삼시라 불려오는 조름을참지못하야 조을며운전을하야 오다가 서정리(西井里) 역근방기차선로에서 고장을 이르키여 수선하든중 마침신경(新京)행급행히가리가래도함으로 그를 정거케할까지노앗스나 속력으로 인하야 정거치못하고 마츰내충돌되야 인명에는사상이 업섯스나 동급행차는 오십분연착되엿다함은 사건즉시 보도한바와 갓거니와 전기림주문은면허도업는 일개조수로 전기와가튼사고를 이르키엿슴으로 그종적을 알길이업서 그를엄탐중이든바 평택서 인천자기집으로떠나간이후 일체도라오지아니함으로 인천서에서는 부근지방을수색하든바 지난팔일소사(素砂)역전모려관에서 체포하야 방금엄중취조중이라한다

仁川署高等係 職工青年檢擧

【仁川】근일인천서고등계에서는 송림리(松林里)최모(崔某)(二〇)외에 삼명의직공채탐의청년을 검거한후 극비밀리에 엄중취조중이라는데 탐문한바에의하면 린촌회사(隣寸會社)직공들이라는데 그배후에는 모종의 결사가 잠재한듯하다는바 취조에따라 여하히 전개될지 주목되는바이라한다

無電交信에 雜音放逐成功

空電吸收特殊裝置

무전방송(無電放送)의 교신에잇서서 늘 곤난을 느끼는것은공중의 혼신(混信)과 및 잡음의 방해로서 아직까지도 아모해결을 보지못하고 잇섯는데 그동안 체신국(遞信局)좌좌목(佐佐木)기사가 그장치를 발명하야 작년구월에 특허신청을 햇든것이 요지음 특허 제일만오백십구호로써 인가가 되엿다고한다 이기게 장치는 가청주파(可聽周波)의 혼신공전의 지시평형(遲時平衡)을 리용해서 일부러 혼신공전을 흡수하게되엿스므로서 모든방해 전파를 죽이고 분명하게 들리게되는것이라고한다 이발명으로인해서 전시에도 다른전파의 방해를 완전히물리치고 교신할수가 잇다고하며 그바께도 곤난하다고 보이든 원거리중계방송도 무난하게 할수잇게되리라한다

薄俸의이悲哀!

新春曙色을등지고

한명은失戀當코한명은生活難으로

鐵路怨鬼된兩青年

아모리 사랑이 깁허도 십오원월급에는 사랑이계속하지를안는다 아모리빼빼지게버려도 이십원수입으로는 사오인의 가족을 멕여갈수가업다 사랑을땔치고는 살수가업고 식구를끌기고는 살수가업다고 부르짓고 젊은청년이 이틀사이에 가튼장소에서 무참하게도 철도에뛰여드러 파란만흔이라는 일천구백삼십육년의 벽두를 피로 물드린사실이 잇다。팔일 오후열한시사분 경성역을 떠나 원산방면으로 향하든 화물렬차(貨物列車) 제오백사십일호가 왕십리(往十里) 청량리(淸凉里)사이를 지날때 돌연히청년한명이 선로에 뛰여드러 두다리가 갈려서 즉사한 일이 잇는데 그는 시내서사헌정(西四軒町) 채운장(彩雲莊)『아파-트』에 고용인으로 잇는 김삼남(金三男)(二一)으로 얼마전부터 부내모『카페-』에 다니면서 녀급(女給)과 정이 점점 기퍼저 굿게 장래를 약속하고 매일과가티 맛나서는 사랑을 속삭이여왓스나 한달에 십오원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사랑하는 사람의 환심을 살수업서 실연의 쓰라린 고통을 당하고 비관하여오든차 도저히 그와가티 살수업다면차라리 이세상을 그만두고 마는것이조타고 각오하고 팔일아츰부터 채운장을나와 갓다오다는말업시 행방이 불명되엿다는것이라한다

시내명치정(明治町)이정목양광당제약합자회사(陽光堂製藥合資會社) 점원으로잇는 오천룡(吳千龍)(二〇)이라는 청년이 칠일오후열시 전방에서 동무집에놀러간다고 나가서 도라오지안허주인이 걱정해 여이든차에 이튼날인팔일아츰에 경성역에서 전국정원의 시체를 차저가라는 말을듯고 비로소 그가 밤열한시쯤시외마장리(馬場里)철도와도로의교차점(交叉點)에서 자살한것을알게되엿다한다 그는 평소에온순한성격이면서도 생각이단순하엿다는데 자긔집엔사오인의 가족이잇스나 전책임이한달에 이십원내외의 월급으로는 도저히생활을 유지하여나가지못하게되여잇는데다 항상 가정불화가만허 그것을 한탄하여 오것으로봐서 가정불화와 생활난으로 자살한 것갓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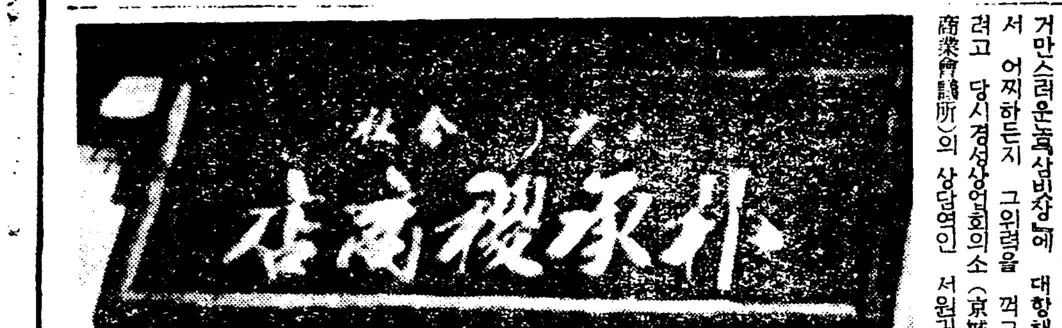
空家에殭屍

구일오전 여덜시쯤 시내죽첨정(竹添町)순찰하는도중 관철동(貫鐵洞)이백륙십일번지 빈집에 삼십세쯤되여보이는 사내의 시체가 누어잇는것을 발견하고 즉시검시한결과 그는걸인으로 이리저리 도라다니다가 잘곳을찾지 빈집으로 들어간것으로 죽은지 삼일이나되여보이는 어려죽은 시체라한다

毁家役事中 人夫가壓死

市內元町通에慘事

새해에 애석한 죽엄을한 날품파리 로동자-지난여드렛날아츰아홉시반쯤되여 시내원정(元町)삼정목 일번지 녜전조선인쇄회사(朝鮮印刷會社)자리에서 황금정(黃金町)오정목 백팔십오번지 오황룡(吳黃龍)(二〇)이가 그회사 제일제본소(製本所)정문에 올라가 집허는일을 하고잇다가 기리여덜자에 물레두자가량되는 커다란 벽돌뭉치가 떠러지는바람에 노피여덜자나되는 땅아래로 함께 몰려떠러저서 머리가 부수어지며 그자리에서 발모죽엇다 시체는 소관룡산서(龍山署)의 검시를거처 그의아버지 오영재(吳泳在)에게 넘겨주어다한다



(사진은 박승직씨와그상점)

業連綿三代 (九)

白木한疋에두兩두돈 "三백장"防遏苦心談

朴家粉은顧客에게『덤』으로주든贈品

兩代五十五年朴承稷商店

구녕뚤린진 당오(當五)한푼주면 커다란 사발로 약주술 두잔을 주나하면에 그런 거짓말 마라」하고 누구나 안미들것이다。게다가 다시 엽전두푼을 거슬러준다면『미친 사람의말!』하고 더구나 고지 안들을것아닌가?

그러나 이런 어수룩하고도구수하게 들리는 세월이 확실히 조선에 잇섯스니 그것이 즉지금으로부터 쉬흔세해전인 계미(癸未)년가을(당오)라는모-던통화(通貨)가 엽전의 전통적세력을 꺽고 새로 나와서 기세를 뽐내이든그때엿든것이다。

공의사(共益社)아니 그보담도 박가분제조본포(朴家粉製造本舖)로 유명한 박승직상점(朴承稷商店)의 주인 박승직씨는『묵은조선』의 면포업사(綿布業史)를말하는 산력사의 한분이 된다。

고루거하가 즐비하게 벌려잇는구리개(黃金町)네거리쪽에서제일번지(一)높흔 벽돌집 꼽지면공의사(共益社)라는것을 들것이다。공의사가 생긴지 오십여년동안에 격거내려온 흥망과 성쇠는 조선의 그것과 마찬가지것으로 그속엔 우숨도 싸히고 눈물도 꾸려저잇는것이다!

그러면『공의사』안이 조선의 면포업으로 산력사의 주인공인 박승직씨의 로안(老眼)에 비추인 신구문화의 한『페-지』를 들추어소개해보기로하자。

씨가지금으로부터 쉬흔다섯해전인 즉 열여덜살되든해에 처음으로 면포업을 시작햇스니 그때는 좌처도 업시 전라도 령암(靈岩)、라주(羅州)、무안(務安) 강진(康津)등지로 주로무명을 무역하려다녓섯다。무명한필은 치척마흔자로 당오 두냥두돈을햇고 한량이면 열대자。그러고 소한머리에 옛량 쌀한섬에 한량여덜돈을햇다니 당오한푼에 술두잔 그리고 엽전한푼 거슬러주든 그것과 어수룩한품이갓지안혼가?

그러케 헐한무명을 한번무역에 설흔필가량식 해다가 그것을 서울갓다 팔기를 십년동안 하다가그후소위륙주비전(六矣廛) 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장사가 자유로하게 되든해에『공의사』를 창립햇든것이다。

그때 공의사가 창설된것은 당시몰밀듯 몰려드러온삼정(三井)의『삼빗장』표광목을 대항키위한것이엿다。한토기에자미잇는『에피소드』한토막이잇스니즉『삼빗장』이란 놈의 세력이 어찌나굉장하든지 이광목한동을사려면 열흘전부터 미리 예약을 해야되고 더구나 가령 열동을 사자고 선금을미리갓다주고 예약해두면 두쩍이스무날이나 지나서나 고작세짝박게 안주엇다。

그래서 박씨는 이눈꼴사납고 거만스러운놈(삼빗장)에 대항해서 어찌하든지 그위력을 꺽그려고 당시경성상업회의소(京城商業會議所)의 상담역인 서원귀상(西原龜三)이라일본내지인을동경(東京)으로 파견해서 종연방직회사(鐘紡)과 특약하고『구룡도(九龍圖)』라는 새『마-크』의 물건을 맨드러다가 헐가로 전조선에 퍼트리자 일반가정의인기는『구룡도』에로!『구룡도』에로! 물려드러 하찬『내천하다!』하는듯이 기세를 뽐내이든『삼빗장』은 풀이아조 죽고말어서 차차 그 그림자가 포목전점두에서숨겨바리고 말엇든것이다 그때가『을』(乙巳)거래시대로부터 소위수형취인(手形取引)시대로 막바귀든해이엿다

그다음 박씨는 계속해서사내(寺內)총독시대에 저포(苧布)소산지인한산(韓山)서산(瑞山)등 일곱고을로 도라다니면서 저포직조를 개량식혀가지고 그것을 독점하다시피 오직공의사로만 위탁해서 팔게햇든것이다。이저포개량에 박씨가 쓴돈은 약삼십만원이라니 엄청난 희생이 아닌가。

『공의사』는 면포로만의『공의사』가 아니엇고 다시 쇠가죽(牛皮)으로도 당시유명햇섯스니즉쇠가죽을 전조선에 헤터저 잇는 그때 백정(白丁)들에게 자금을 대주어서 한번에 몃만장식 모하드렷다。그리고 쇠가죽다루는 법과 말리는법가튼 방법을 개량시코 명월관(明月館)이 맨처음 생기든해 그리로 백정들 수백명을 청해다가 강습을 시키고 환대도 햇다니 자미잇는 이야기의 하나일것이다。

이러틋 무역의 손을 다방면으로 뻐처서 사업이 날로발전되자 씨의 부력은 약칠십만원이나 되엿든것이다。

여기에 한가지 특긔할것은 박승직씨의『공의사』가 유명해진 반면에 또한가지 그로하여금더욱 유명스러케한것이 잇스니그것은 건는방아가씨들에게 가장 친한 화장의 동무『박가분』(朴家粉)이 그것이다。그제조본포가 박승직씨집 안방이라는것을 듯고 얼마나 박가분 그것이귀염성잇게 보이는가?

자초에 이것을 맨들기는박씨 상점에 차저오는 손들에게 한갑식 그냥논하주려고 한것이차차 유명해저서 안악네들이 찻느니 이것뿐이므로 우연히 이것도 상품의하나로귀중히 되게되것이다。

이리하야박씨는금년칠십세의고령으로 씨가경영하든점포는 족하사위에게 전업을하고 씨는지금도 로력을물고하고 조선인상계를위하야 로력을 다하고잇다한다。

京平對抗氷上에出戰할 京城代表팀選拔

今日、白狗記錄會에서

寫眞은 漢江鐵橋下에서열린 白狗滑氷俱樂部記錄會光景

來十一日에 平壤大同江鐵橋下에서 열리는 本社後援의 第五回京平對抗氷上競技大會를 압두고 이大會에 出場할 京城代表팀을 選拔하는白狗滑氷俱樂部 記錄會는 豫定과가티 九日午前十一時부터 漢江人道橋上流特設링크에서 五百米타임레-스로부터 열리엇다 이날氣溫은零下五度 바람한점업는 絕好한컨디슌아래 參加한十三名選手가 五百、千五百、五千米의 順으로滑走한바 各種目의 成績은다음과가트며 競技가 끗난다음 뒤니어同俱樂部幹部會를 열고 當日의 成績을參考로하야 京城代表팀을 選拔하엿다 一行은 今九日 午後十時五分京城發 戰地平壤으로 向할터이다

◇五百米(타임레-스) ▲1、白承旭(養正)五〇秒 ▲2、鄭殷彦(京城)五二秒 ▲3、白承哲(普專)五三秒六 ▲4、金仁植(京城)五五秒 ▲5、文壯鎔(京城)五八秒

◇千五百米(타임레-스) ▲1、張雲鳳(京城)二分四五秒三 ▲2、白承旭(養正)二分四六秒二 ▲3、白承哲(京城)二分四七秒二

◇五千米(오픈 코-스) ▲1、崔昊洙(徽文)九分五七秒八 ▲2、白承哲(普專)九分五八秒 ▲3、張雲鳳(京城)十分十秒八

◇京城代表팀陣容 ▲監督許貞國 ▲코-치尚鳳梧 ▲主將金容根 李惠澤 嚴昌燮 崔昊洙 白承旭 白承哲 崔點

中等籠球最高峰

第二回京平對抗戰

來十七、八兩日崇專코-트에서

【平壤】1936年! 第一聲의 籠球界豪華版……朝鮮中等校籠球戰線上의 最高峰을 占領할 京城代表對平壤代表 第二回籠球對抗戰은 平壤崇實專門體育部主催本社平壤支局後援으로 오는十七八兩日 午後七時부터 崇專體育館에서 開催키로되엿다 今回의京城代表는 養正高普軍이요 平壤代表는 崇仁商業軍으로 果然누가 覇權을 獲得할는지 賭키難한 試金石의 朝鮮籠球有史以來 稀有의 大接戰으로 그人氣는 임이 全朝鮮的으로 沸騰하야잇서 注目을 끌고잇다

通洞에火災

一棟二戶를全半燒

구일아츰 열시반 시내통동(通洞) 일백일번지 황태성(黃泰性)의집에서 불이 이러나 초가한채를 전부불사르고 이웃집두곳에까지 연소하엿슨바 즉시 경성소방서의 출동으로 동열한시반에 진화되여 일동전소 이동반소로 약오백원의 손해를내엿다는데 발화의 원인은 이날 아츰에 열한살되는 어린애에게 집을맛기고 집안사람이 전부나가고 업는사이에 화로피여둔불에서 불이이러난것이라는데 불은진화하엿스나 그집일곱식구중 겨진해와 네살먹은 어린애두명행방이 전혀알수업시 되엿슴으로 각방으로 수사하는일방 혹집에파뭇처 일을 만나지나안헛는가 재만남은 불탄터를 맹렬히 두적거리고잇다(사진은불타는현장)

×

동일아츰 아홉시반 관훈동(寬勳洞) 이십구번지의 팔호 리계호(李揆虎)의집 광에서 불이 이러나 광을 전부태우고 이웃문금란(文錦蘭)이란 기생집에 연소되야 일시대소동을 이르켯스나 반시간후에 무사히 진화되야 략오십원의 손해를 내이엿다는데 발화의원인은 아즉 조사중이라한다

自殺演劇者에說諭

부외성북리(城北里)일백칠십번지 김태정(金泰貞)(三一)은 팔일오후 다섯시 술을마시먹고 부내광화문통 경긔도청압헤서 창칼을자긔목에대고 자살하려는것을 그곳파출소원이 발견하야 톡톡히 나물한후 그의가족에게 돌려보내다한다

延專對早大 球戰續報

【東京】全延專對早大의 最終決勝戰은 三十六對二十七로 延專이 快勝하엿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早大軍은 前半에 十一對十으로 一點을리-드하엿다가 後半에 드러가 長身을利한 延專의 圓滑한『패스』를 防禦치못하고 退却하엿는데 이날의 스코어는 다음과갓다

全延專 36 (26 10 : 16 11) 27 早大

【延專】反	得	選手		【早大】選手	得	反
1	8	金應鎬	F	土橋	5	1
1	10	李性求	F	田中	2	0
			F	横山	9	2
			F	川原	2	2
3	4	廉殷鉉	C	黑田	0	1
			C	岡	1	2
2	11	張利鎭	G	黑川	3	3
1	0	鄭斌	G	小田	0	0
1	3	洪文吉	G	宗像	5	0
9	36				27	11

延專歡迎籠球

來十五日에擧行 青友俱樂部主催

日本內地에遠征하야 그곳最强敵을擊破한後 悠悠히 制覇한 延專籠球團一行은 十三日午後七時二十分京城驛着列車로 凱旋할豫定인데 이凱旋將軍을 마지하야 青友籠球俱樂部에서는 十五日午後三時부터 鍾路中央基督靑年會館코-트에서 歡迎籠球를 行한다는바 青友俱樂部멤버는 다음과갓다

▲金振秀 李東澤 孫福俊 金成奉 李惠逸 田盛鎭 崔鴻昊 南興

江界氷上代表 今朝入京猛練習

氷上의都 江界를 代表한 尹明洙、金永吉、崔昊洙、劉仁順、金河吉等 選手一行은 全朝鮮氷上制覇를 꿈꾸며 七日에 江界를 떠나 九日午後七時 二十五分에 元氣旺盛한 가운데 京城에 着하야 茶屋町 浦一旅館에 投宿하엿다 一同은 都市對抗戰을爲始하야 朝鮮神宮氷上及 全朝鮮選手權大會에 勇躍出戰코저旅裝도 풀사이업시 漢江과 淸涼里兩링크에서 猛練習을 開始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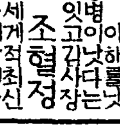
天氣豫報

高氣壓은 國境中部에 七七八미리 北中國에 七七六미리를 表示하며 氣壓은 日本海를거처 千島方面에 나저지고잇다 滿洲朝鮮은晴하고 南朝鮮地方은 흐리며 日本內地도흐리다 裏日本의 一部은 아직雪模樣中이다

朝鮮半島의氣溫은 昨朝보다는 度內外내렷다

豫報 今夜京城地方은 日氣는조흐나 一時흐리다 京畿全區도日氣는조흐나 一時흐리다 明日도今夜와갓다

昨日最高 零下一度
昨日最低 零下一〇度二
今朝最低 零下十一度九
正午 零下六度



眞品 海狗腎 을服用하라

長生不老도 陽氣가 조아야! 大業成就도 陽氣가 조아야! 陽虛한 男子는 生不如死다! 速히 이-樺太廳官營採取品인

本品은補精腎氣强壯에神秘的靈效가有한바北洋寒帶地方의產物을樺太廳에서官營으로捕獲하야同廳水產物檢査所에서嚴正檢査證明한世界的高貴의眞品이라一服하시면그神効를能히料量할것이외다 (求服을願하시는분은說明書請求次第즉進呈함)

發賣元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釜山府岸梁町三貳二番地ノ三 電話長二二二九番 振替釜山七九二二番

恩給 立替低利整理及借換歡迎 京城光化門通一四七(光化門郵便局前米店後) 朴商會

主任 曺秉學

醫學堂眼鏡店 檢眼 無料 檢眼 洪鍾厚博士擔任 京城鍾路靑年會館 電光二二八番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光 一一五九

히스테-리에 はれやか (하레야가)

齒科器械材料 新合金ワンダ-鈑 其他各種 右岸品豐富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東一銀行南大門支店横入) 中央齒科商會 電話本局 四二六八 振替京城 一六四九一

追伸『사-비스』部만은 當分間左記舊所에서從業케되엿사오니『써-비스』에 關한用命은同所로하야주심을바람니다 平壤府旭町一二番地 平安自動車商會사-비스部 電話 一六七七番

營業擴張廣告 拜啓、諸位의淸安하심을頌祝하며弊社는伊來 各方面諸賢의변함업는愛顧를밧사와業務가날로隆興하여짐은 實로感謝하는바이옵니다 昨秋以來로社屋을新築中이든바 이제一部完成을보게되야 (사-비스部는除하고) 一月六日부터 左記新築場所로移轉하고業務를一層張擴한후 親切한奉仕를하고저하오니僉位는倍前愛護하야주심을 바람니다 平壤府南門町三八 (平壤驛前幸町電車停留場前) 日本제네랄·모-다-스株式會社特約店 合資會社 平安自動車商會 電話長 六六八 七四七 七七〇 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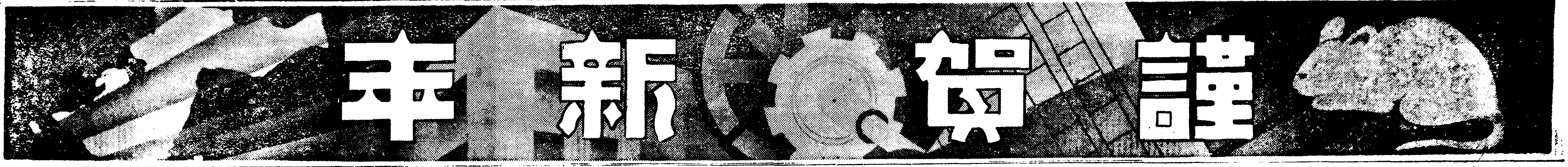
婦人病 子宮病에 調血精 귀여운 아해를낫코지 못해 자궁병이 잇는 이의 증거가 잇다 조혈정 ...

神經痛 류마치스 患者여러분께 東洋에唯一인 內服藥 注射와同効한

藥野莊東京出張所 東京市京橋區入舟町 振替東京五四五〇番

朝鮮日報 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

東洋劇場 一月八日부터四日間 晝夜二回興行 午後一時 午後七時 舞踊과映畫의밤 趙澤元舞踊研究所 總動員 新作發表 1、夢(도피시曲) 2、嘆息하는피에로(드보르작曲) 3、炸裂(無音樂) 4、월스 5、愛의歡喜 6、小夜夜曲(도세리曲) 7、마츠루가(舍판曲) 8、湖畔에서(류-란스曲) 8、무섭다(쇼팡曲) 10、僧舞의印象(金駿泳曲) 11、黃昏의圓舞曲(이바노비치曲)



浦項

慶北浦項 海産物委託貿易 **三一商會** 金龍周 電話三一番

迎日郡廳職員

迎日郡農會

浦項稅務署

浦項金曜會

大阪商船 朝鮮郵船 島谷汽船 ◎運送 代理店 **浦項運輸株式會社** 電話一二三 二五六 一三四 一六四

浦項釀造株式會社

浦項醫友會

慶尙北道浦項 **大興電氣株式會社浦項出張所** 小山定男

慶北水産株式會社

慶北身欠鰊製造業組合 組合長 田中貢 理事 岩崎小一郎

慶北迎日郡興海 **ダイヤモンド乾電池製作所**

迎日郡 **松羅漁業組合**

浦項邑 慶北道會議員 金斗河

慶北道會議員 李源璣

慶北道會副議長 中谷竹三郎

浦項邑會議員 姜暻錫

延日面長 鄭泰鎔

朝鮮慶北浦項港 合資會社 **金東商店** 電話一七三番(電略キヌハキト) 振替口座下関九一五〇番

慶北浦項東濱町 貿易商 石炭 水産品 漁業 海産物 **浦項産業社** 主 李雨珍 電話147 振替6814番

神光 喪中欠禮 李源稷

神光 喪中欠禮 李東鎭

東海面 金永源

迎日郡浦項邑 慶北漁業株式會社

慶尙北道水産試驗場 員一同

浦項 迎日漁業組合

松羅面長 李震玹

長鬐漁業組合

東海面 甫川漁村振興會

大川漁村振興會長 金亨洙

浦項邑會議員 大上留造

慶北物産會 主事 佐佐木知一

浦項驛長 正分德一

浦項邑長 下村重英

興海面長 李洪珪

兄山面長 韓孝文

大松面長 李鍾得

東海面職員一同

只杏面長 徐鍾漢

迎日郡神光面長 朴權祚

迎日郡曲江面長 鄭淵翊

淸河官公署一同

浦項邑教員團

松羅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浦項邑 迎日麵子製造株式會社

慶尙北道迎日郡 松羅造株式會社

慶尙北道迎日郡達田面 達田酒造場 主 李願雨

迎日郡河 酒造株式會社

興海面 興海酒造組合

浦項料理屋組合

海産物委託販賣 鄭川守商店

海産物委託販賣 朴乃壽

海産委託業 永信商會 主 李永雨

興海 全精米所 崔晶鎬

神光 李種久

迎日郡杞溪 李殷雨

料理商業 李亨林

昌州面九龍浦 無名氏

興海 崔元澤

松羅 郭暢泳

曲江 李相釆

浦項邑 合同印刷所 電話二一七番

浦項 李一雨

滄州面大甫漁村振興會長 河斗浩

大甫漁村振興會

熙川

平北滿浦線熙川驛前 **熙川鑄物工場** 代表者 吳元根 顧問 白禮錫 技術員 金官涉

滿浦線价古驛前 ㊕㋙運輸計算會社加盟店

鐵道貨物 陸地運送 穀物貿易 木材製造 ㊁荷主運輸合資會社 支店前川、別河、江界、滿浦

熙川警察署職員一同

滿浦線熙川驛前 丸勝運送部熙川支店 穀物貿易 **三益社熙川支店**
滿浦線价古驛前 丸勝運送部价古支店 穀物貿易 三益社价古支店

价古介 盧鳳奎

熙川邑內 金剛醫院 公醫 崔佺錫

熙川驛前 共濟林業事務所 **李鍾會**

平北熙川 朝鮮料理 **淸江春**

滿浦線熙川驛前 名勝古蹟御案內 藥水溫泉 **新興旅館** 文振朝
滿浦線价古介驛前 江界方面 滿州奧地 直行旅館 **平滿旅館** 文振三

熙川驛前 海産物委託 ㊧合名運輸組 合名商會出張所 本店安州

滿浦線熙川驛前 **洪濟入齒院** 朴元奎

熙川邑下洞 完豊金山 鑛主 **金洙一**

滿浦線熙川驛前 ㊥平寧運送部 平寧自動車商會 尹昌祿

熙川 **酒造組合**

滿浦線价古介驛前 鐵道荷物、取扱及陸地運搬業 **鮮滿荷主運輸組**

滿浦線价古介驛前 食料品 雜貨商 菓子製造 **太田商店** 主 吉洛均

熙川邑內 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熙川郡廳

熙川邑上洞郵便局前 平壤麵屋 電話三一番

熙川長洞 金昌治

熙川新豊面東洞 北拓鑛業 廬洞鑛山 事務所 鑛主 吳翰律

朝鮮平北熙川 和洋百貨 价川百貨店 熙川支店 電話三六番 朴秉實

平北熙川郡南面興南洞 猊林山金鑛事務所 宮崎純治

熙川驛前 最新流行 洋服新調 半島洋服店 主 文鎭俊

熙川驛前 親切丁寧 第一旅館 主 康允明

熙川北面价古介驛前 德仁學院 校長 朴圭 校監 朴 教員 辛

熙川金融組合

熙川郡熙川面邑內 砂盛齋

熙川南面圓洞仙原 仙原金鑛事務所 李

熙川郵便局

熙川郡熙川面邑下洞 金承燻

熙川東倉面 事務所職員一同

熙川 稅務署

熙川邑內 榮興商店

熙川驛前 中央旅館

熙川邑內 天道敎熙川郡宗理院

熙川郡長洞面 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熙川東倉面 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熙川驛前 ㊁荷主運輸組

熙川邑內 熙安商工所 主 韓明淳

熙川邑內 新興木工所 林成根

熙川新豊面柔院鎭市 共濟林業事務所 李錫會

熙川新豊面長 黃完燮

熙川新豊面 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熙川新豊面柔院鎭 金融組合 康炳胄

熙川郡新豊面北洞沙坪 車澤均

熙川郡新豊面柔院鎭市內 松葉旅館 主

熙川邑內 申泰奎

平北熙川北面价古介 丸吉木材部 李龍洙

滿浦線价古介驛前 大洋商會 喪中欠禮 盧樞奎

滿浦線价古驛前 丸三商會 韓麟奎 金在慶

熙川邑內 回春醫士院 康允

熙川邑內 正信商會 李正松

熙川長洞面舘洞市 金錫澤

熙川長洞面舘洞市 申允虎

熙川東倉面倉洞市 金德永商店

熙川長洞市 江界旅館 主 吳昌殷

熙川邑內 冬季用ゴム 福來堂印舖 主 南基星

熙川新豊面南洞 崔永鶴

熙川新豊面北洞沙坪 簡易學校 金基洽

熙川新豊面柔院鎭 專賣局販賣所 崔承俟

平北熙川新豊面 代書人 韓熙傑

熙川新豊面柔院鎭市場 申奭成

熙川新豊面南洞 韓陽世

熙川北面价古介 白世用

滿浦線价古驛前 金剛商會 李用三

古介洞 安樂順

滿浦線价古介驛前 同化醫院 羅昌熙

滿浦線价古驛前 平壤旅館 金昌鎬

安東

慶北安東邑 **戊辰會**

慶尙北道 穀物貿易 官鹽販賣 **宣城商會** 李東克 吳南洙

安東郡廳職員一同

慶安釀造株式會社一直支店

安東郡禮安面事務所職員一同

瓮泉酒造組合

北後面道津洞 林永增

北後面瓮泉洞 興和醫院

安東酒造組合

安東警察署

慶北安東邑

慶北安東郡一直面雲山洞九五番 大信消費組合本店
慶北安東郡一直面雲山洞五二 大信消費組合支店 理事 吳貞秀

安東郡禮安面台谷洞 權宅永

安東郡禮安市 禮安酒造組合

禮安市臥龍藥局 洪千壽

慶北安東邑慶倉前 穀物貿易 第一商會 金勳

安東邑旭町 天美理髮館 主 金玉辰

安東郡臨河面 新基振興組合

一直公立普通學校

安東郡 綠轉面職員一同

安東郡陶山面溫惠洞 李璋敎

禮安公立普通學校長 小島始

禮安郵便所長 曾田藤吉

安東郡禮安 李中仁 (舊名中久)

安東郡禮安 李中逑

安東郡禮安市 布木雜貨 申東均商店

北後面瓮泉洞 姜晳熙

平恩面 有志 張秉泰 (前名秉台)

慶北安東邑 藥種賣藥 度量衡 森岡三泉堂藥房 電話三五番

安東驛前(朝鮮日報社支局越便) アート館 石版部 李瓏鎬

安東商工會長 大井利三郎

安東邑新市場 海産物委託販賣及貿易商 權命學商店 電話一二二番

釀造 布木 權濟漢商店

慶北線安東驛前 建築材料商 大榮商會

姜熙伯

安東電氣會社

慶尙北道安東醫院 職員一同

安東穀物商組合

安東郡吉安面 面長 薛永稷 外職員一同

安東郡臨河面面長 林中寅 外職員一同

安東郡臨河面川前釀造場 金文植

安東郡陶山面溫惠釀造場 李源栢

安東郡陶山面土溪釀造所 李源棵

安東郡禮安面仁溪洞 南渭浚

禮安面[illegible]釀造場 李直鎬

安東面學校評議員 李在敎

慶北禮安 仁溪釀造所 申鏞桀

安東金融組合 理事 市川龜一

大本山孤雲寺安東布敎堂 布敎師 姜裕文

吉安公立普通學校 校長 奧原武雄

安東郡吉安面浮浦洞 李潤鎬

금년부터는 이럴참이요

마른돈절약해서 자녀들교육비로 저축하랴합니다

朱耀翰氏婦人 崔善福女史

가정사리하는 몸이니 가정에 대한 의무에 충실해야 할것은 더말할 필요가 업는일이지만 나도역시 이사회의 사람이라 내 먹고 입는데만 몰두하기보다 그이되 적은힘이나마 성의를 다하야 좀더뜻잇는일을 햇스면하고 생각해오든바를 이신년부터는실행해보려고하나 뜻과가티 될는지 도모르지요 우리 가정부인들은 남편이 벌어다주면 마튼적든간 집치장과 어린것들과 자기치장과 영양을 가리어 먹고하는데 다써버리고 마는가정이 대부분인것 갓습니다 물론먹고 입어야하겟지만 남편의 수입에「마이나스」를 내지안는 정도에서 먹고입어야 남편을 도읍는 의미에서 나의 의무의 가장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생각한바는 신변부터는 조선사람의 생활 정도이상의 또는 계산업시 무계획적 소비를 피하고 적당히 절약을 하려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마타쓰는 살림사리돈을 규모잇게 써서 압날에 자녀의 교육비를 세워주고십기도하며 조금씩 넘우합것드나 한사금 못주어 되한없는 하는 가엽슨 어린니들에게 다소라도 도와 주겟다는 변려의 복안을 신변부터는 실행을 해보려고하나 실행이 잘되여질지도 문제입니다

(사진은 최선복씨의 가정 쪽끄테분이 주요한씨)

언짠튼 장맛도 눈을마치면도라서

거짓말갓트나정말신통한사실

병든장의민간료법

겨울철에는 눈이 한경치을씨다。산이나 들이나 집웅이나 나무ㅅ가지나 모도가 흰눈으로 더피것을 볼때는 퍽 유쾌한 생각이 듭니다。그러나 눈은 단지 보기에만 유쾌한것이 아니라 여러가지로 유익한점도 업지 안습니다。첫째로 눈이 잔뜩 싸히면 땅의 온긔가 찬바람에 빼앗기지 안키때문으로 나무며 풀들의 뿌리가 잘 얼어 죽지 안코 둘째로 눈석은 물이 고이면 초봄의 가믈를 면하게 되고 셋재로 눈이 만히 오면 해충이 잘 번식지 못한답니다。눈을 가지고 풍흉을 점치는 것도 과히 거짓말은 아닙니다。눈이 안와서 걱정하시든 룬인네들이 살림래로 싸히는 눈을 보시고 반색하는 것도 고이치는 안한 노릇입니다。그나 그뿐인가요?가정에서는 가정에서대로 눈을 만히 이용하시는 경우가 잇소이다。

눈을 바더서 녹인물을「눈석이물」이라고 합니다。이「눈석이물」는 약을 조제하는데도 쓰고 빨래를 빼는데도 쓰고 또 그이외 여러가지에 씁니다。거긔는 다소의미신도 뭇혓겟지요 만은 적어도 기와ㅅ골에서

흘러나리는빗물

을 바더쓰는것보담 깨끗하지안할까고생각합니다。물론 눈에도 몬지등속의 다른물긴이 석기어 잇다고하지만는 증류수에 노코비교적 우물이나샘물보담 다른물긴이 만히포함되야잇지 안키때문으로 약을 조제하는데 취한것이 아닌가고 추칙합니다。그런데 넷적관들 조차서「눈석이물」을 맵들어서 이것저것 하시는것은 무방하되 그러타고 함부로

아모데나싸힌눈

을 가저다가 쓰시어서는 안됩니다。더구나 약을 조제하는것은 빨래를 빼는것과도 달려서 좀깨끗한장소를 선택하시는동시에 우물것고 아래를 내던지어 그중간것을 취하시지 안 하야서는 안 됩니다。그러나「눈석이물」로 약을조제하거나 빨래를 빤다거나 하는 것은 별로 큰의미가 업습니다。그보담은 눈을 가지고

장맛고치는방법

이야말로 필요하고도 희한한 지식이옵시다。그러면 어떠케 고치느냐고요? 본래장이란 일상당그는 것이지요만는 흔히 물과 간을 잘 마치지 못 하거나 맛이 드만큼 적당한 시간을 경과치 못 한때는 짜쓰고 고리고 가지각색의 병들이다 듭니다。이러케 장맛이 한번 글려노코 보면 모든 음식의맛을 전부 요절 내 버리는 폭입니다。아니 그러니 그장맛을 어떠케 고친다는 말인가요? 눈이 올때 돈두께를엽이체치고 간이 아조어느정도까지

흠뻑눈을마치어

둡니다。그러고 나면 이상야릇하게도 장맛이 살짝 도라오게됩니다。간장도 그러코 되장도 그러습니다。단시 눈올탐우 지누치게 마치어서는 되장이 무장이되고 간장이 괭수가 될뜻 주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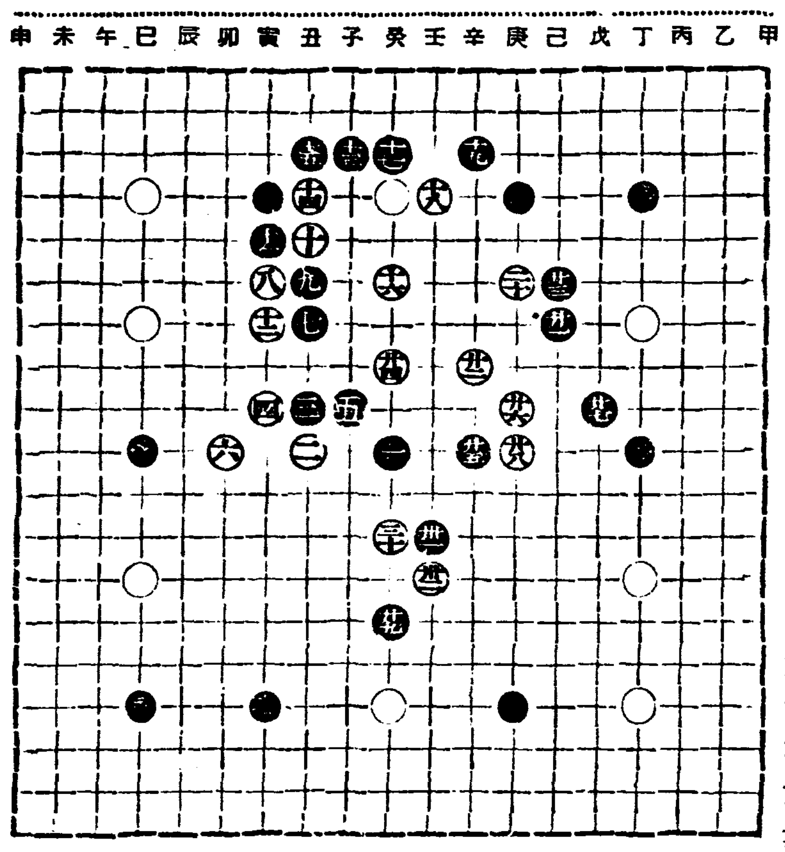
흰비다장갑 세탁하는법

흰비다장갑을 세탁할때는 석조혼비누를 물에푸러 거기당거두면 때무든것이 바그로 소사내곱니다 이럴때 손으로 약간 문대서빨면 아주꿈게 빠집니다 그리고 이즈음 비다장갑에는 인조견이 교묘하게 석긴것이 만습니다 그럼으로 장갑사실때는 이점을 잘아라가지고 속지안토록 하십시요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2＝

白 蔡極文
黑 丁奎春



●	十七	癸의三
○	十八	壬의四
●	十九	辛의三
○	二十	庚의六
●	二十一	己의七
○	二十二	辛의八
●	二十三	己의六
○	二十四	癸의八
●	二十五	辛의十
○	二十六	庚의九
●	二十七	戊의九
○	二十八	庚의十
●	二十九	癸의十四
○	三十	癸의十二
●	三十一	壬의十二
○	三十二	壬의十三

◆對局者談 白은 孵化狀態로 中央[illegible]構난 巧妙하나 [illegible]出의 紛忙함으로 東邊長廣[illegible]과 丁의七將까지 孤立을 當하고 黑[illegible] 中央連結이 稍成가 迫近함으로 巳의十將 方面에 不利氣分이 重疊하니 勢難控制오 [illegible] 著은 碁之義本然이로다 作戰計[illegible]은 均等으로 輸在하니 來面變幻如何에 神手[illegible]

當選小說

寺下村 (3)

金廷漢 作
安夕影 畵

듣깨는 보리ㅅ대모자를 부채삼아 내흔들면서、쥐꼬리만하플을달고 내려가다가、철한이란놈하고 봉수란놈이 논 가운데서 곰처럼 별로 말도업시 이리업치락 저리뒤치락 싸홈을 하고 잇는것을 보앗스나、말릴생각도 안코 제논으로 달아갓나 그논으로 돌린 수통은 물돈 짝 봉해젓다。

『어느놈이 이러케독하게——』

하고 수통논을 겨우 돌어노코 논두덩우에 올라서니 자기 논믜호로 술그머니 피해가는 오촌 당숙이 보인다。

새벽부터 나서서 날뛰어도 반 마지기도 적시지못한것을 보고는 듣깨도 그만 락심이 돼서 논두덩우에 헐석 주저안잣스나 그쥐꼬리만한 물ㅅ줄기가 끈허지자 그는 다시 논두덩을 떠난다。

철한이와 봉수란놈은 아직도 사호고 잇다。

『이、이、이—놈의 자식이、사람을 낫보고서……』

봉수란놈이 빼드렁니를 내물고서 악을쓴다。

『글세、이결안놔?』

철한이란놈이 아무리 재비손을 너흐라고해도、워낙 떼십어 놓이돼서 부주는 끔찍도、도로어 철한이란놈이 더 미라쥐고 밀어다쁘친다。

그러든 놈들이、듣깨가 한호령을 치니、서로 잡앗든 손을 노코 논두덩으로 올라 와다。

『엑기、숭거운 녀석들! 물도 업는데 무슨 물싸홈이야? 부끄러운자리가 그리 업든가!』

듣깨의 이말에 돌는곳 쥐꼬리마한 물조차 끈어진 보ㅅ도랑만 내다볼뿐이엇다。

이욱고 셋은 보ㅅ목을 향해서 발을 떼어노앗다。

의상봉(義相峰) 우으로 해가 기울고 네시(四時)를 알외는 보성사의 큰 종소리가 꽝—꽝 울려 온다。중들은 저녁밥을 먹낼때다。

그러나 절밋마을—성동리압들판에 나도는 농부들은 해가 기울사록 마음은 더답다。게다가 멋처럼 뻔 저수지의 물조차 거의 끈허질지경이 아닌가!

보ㅅ목에 논을 가지고서덕유아동존」식으로 날뛰는 중들의 세도에 눌려서 물을 마음대로 못대인 곰보고서방은 마중내 큰말을 먹고 자긔논 수통논을 좀터열엇다。

그리자 그것을 본 중하양반이 빽소리를 내집으며 쫏차온다。닷자 곳자로、

『왜또 손을대요?』

『인제 물도 다돼가고하니 나도좀 대야지요』

하다가 곰보는 자긔ㅅ말이 너무나 약한것을 깨닷고 한마듸 더보태엿다。

『그리고 당신논에는 물이 철철 넘지안소』

『뭐? 당신은 내입먹을 걱정은 안허우?』

하며 중은 곰보ㅅ논 수통을 봉할려고 든다。

『안돼요!』곰보는 수통을앗가보다 더크게 열면서、

『우에잇는 논은 한벌 적시지도 못하게하고 아래논에만 두렁이 넘게 물을 실흘려는것은 너무심하오。』

『무어——?』

『그러케 노려보면 어쩔테요?』

『야、이친구가 발술이 톡톡한 모양이로군!』

하고 중은 빈축 멸소한다。

『이친구? 네집에는 그래 애비도 형도업늬? 누굴보고 이친구저친구해?』

『뭐가 어째? 야、이녀석이 제법 풀갑을 하는구나。상관에 빵구를 좀 더내줄까?』

『이놈—개갓는놈! 아무리 세상이 뒤바꿔젓기로니……』

『야、이녀석바라。세상이 뒤바꿔젓다고? 하、하、하……』

중은 다른 중도 다들으라는듯이 소리를 놉히드니

『엑기 건방진녀석!』

그리고 제보다 몸피가 훨신 큰 장대곰보의 빰을 한개 갈긴다。

『이게 뭘믿고서……』

곰보가 긔가맥혀서 중의 멱살을 볼끈솜라질때 그큰방에 잇든 중들이 개떼가티 와—몰려와다。그리자 앗가 가동들은이를 상해노튼 농사조합서긔 기봉이가 서울 제국대학ㅅ대에 픗별 차든 형식으로곰보의 아래ㅅ배를 콱기릿다곰보는 악! 하며 그자리에 쓸어젓다。쓸어진놈을 여러중들이밟고 차고……。그리다가 나중에는 빼드러저 누은 놈을 끌고 주재소에 가작고 야단이다곰보는 그말이 무엇보다도 무서워서 잘못햇다고 빌지안흘수업섯다。들개가 겨레가도 곰보는 넉일흔사람처럼 논두렁에멍하니 안자잇섯나 왼편 눈밋티 퍼러케 부어올랏다。

저수지의 물은 그예 떠러저다。물떠러진 ㅅ몽을 우두커니 드려다보는、농민들은 하도 억울해서 말도 욕도 안나오고…만二곳에 주저안는다。그와동시에 외종일 숫갬처럼 쫏차나닌 피로까지 응습해서 이러날 생각도 안낫다。

謹賀新年

高靈 — 高靈面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 德谷面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 雲水面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 星山面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 茶山面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 開津面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 牛谷面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 雙林面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星山面長 朴嘉熙 / 雙林面所 吳稷相 / 開津面所 李倧範 / 星山面所 權泰吉

高靈穀物商組合

洋漢方 高靈青囊醫院 南基元

高靈印刷所 主 裵且乭

高靈酒造株式會社 林泉酒造場 兪昌植 / 合伽酒造場 金仁秀 / 松林酒造場 李海東 / 直洞酒造場 朴根晦 / 平里酒造場 都鎭景 / 禮洞酒造場 李炳權 / 雲水酒造場 奥野藤太郎

高靈郡廳

高靈醫院 院長 元濟淳

衛生醫院 公醫 李憲洪

慶尙自動車部

高靈砂防事業所

高靈邑內 鄭雲漢

司法書士 朴昌憲

樓花商店 李炫直

光信商店 朴光壽

農民商會 鄭春澤

百和堂 李百壽

綢緞布木 東華商店 / 綢緞布木 黃判性商店 / 高靈書士會 / 大昌洋服店 主 姜誠得 / 土木、建築 李萬壽 / 土木、建築 金基睦 / 高靈鑛山 十倉金市 / 德谷面龍興洞 裵鎬永 / 池山洞 卞熙瑢 / 邑內 鄭雲河 / 高靈邑內 中央旅館 / 高靈邑內 菊屋旅館 / 中華料理 德和館 / 雙林面月幕洞 穀商 [illegible]昌稷 / 雙林面 司法書士 李再英 / 煙草販賣所 [illegible] / 高靈邑內 雜貨商 崔判[illegible] / 高靈邑內 兪炳植

間島

滿洲國間島省延吉縣龍井市 間島藥業社 乾材藥局 主 王敏道 / 間島省龍井市 飲食店組合 組合長 姜秉熙 外 職員一同 / 龍井第二保 保長 朴東熙 / 間島龍井市 [illegible]景三 / 間島龍井市公會堂後側 東滿旅館 主 張震熙 / 間島龍井市 龍井馬車屋 主 李晦根 / 龍井村郵局長 米濱鐵藏 自宅電話番號三六三番

間島龍井市 李庚在 / 間島龍井市下市場里 湖南旅館 [illegible] / 龍井 黃憲用 / 間島龍井市牛場里 平北旅館 主 金明化 / 滿洲國間島省延吉縣第五區新和鄉 新和鄉鄉公所 / 滿洲國間島省延吉縣第五區新和鄉 新和鄉保事務所 / 間島龍井市 間島馬車部 主 金在熙 / 間島龍井市大通路 共和堂乾材局 / 間島龍井市下場里 穀物商 李允在 / 間島龍井市牛場里 德興旅館 朴南極 / 間島龍井市 泰興商店 金宗浩 / 間島平崗鶴洞 朴泳善 / 間島龍井市 光德洋靴店 鄭洙根 / 間島龍井市 興華美髮館 / 間島龍井市 大聖院東滿總支院 / 間島龍井市外新和鄉先興村 文元

安邊

安邊郡邑內 金鴻涓 / 安邊郡邑內 金昌鍇 / 鐵道貨物運送及自轉車業 ㈡荷主運送部 代表 朴元景 / 安邊郡安道面於宗里 龍虎金鑛 / 安邊郡邑內 登州農園 主 姜化燮 / 安邊郡邑內 金相賢 / 安邊郡邑內 安邊商會食料品部 主 趙岩石 / 安邊郡邑內市場通 海光商店 卓永河 / 安邊公人俱樂部

安邊郡邑內 黃鎭律 / 安邊郡邑內 李厚墉 / 安邊郡邑內 司法書士 韓國河 / 安邊郡邑內 朴元益 / 安邊郡邑內 李年燮 / 安邊郡邑內 海東館 主 鄭大鎭 / 安邊郡邑內 海東館 妓生 崔海中月 / 安邊郡邑內 海東館 妓生 李雪中梅 / 安邊郡邑內 鶴城釀酒所 / 安邊郡鶴城面上花山里 鐵原館 主 池粟澔 河貞玉 / 安邊郡鶴城面上花山里 崔載律 / 安邊郡邑內市場通 安康[illegible]

安邊郡邑內市場通 三省布木店 主 金鎭鈺 / 安邊郡邑內市場通 シンカーミシン會社出張所 金昌玉 / 京元線安邊邑內 自轉車 時計 洋品 和信堂 / 安邊郡邑內 共信堂時計店 主 金和泳 / 安邊郡邑內 黃道永 / 安邊郡邑內 龍興商店 主 朴[illegible]淳 / 安邊郡邑內 林基寬 / 安邊 無名氏 / 安邊郡邑內 無名氏 / 安邊郡邑內 牛島自動車部 / 安邊郡安道面大瓦里 李升圭 / 安邊郡鶴城面果南里 安一果樹園 / 安邊郡培花面水項里 宋昌鎬 / 安邊郡安道面下比山里 李萬根 / 安邊郡邑內南浦里 李春貞 / 安邊郡邑內 信行食堂 李貞淑 / 安邊郡邑內 朴東秉 / 安邊郡邑內 鄭[illegible]項 / 安邊郡邑內信行食堂 李起淑

芦屋

阪神消費組合芦屋配給所 / 朝鮮日報芦屋販賣所 / 朝光阪神販賣所 朴柱範 / 芦屋 全璂煒 / 芦屋字河原毛 製綿業 李圭炳 / 朝陽親睦會一同 / 芦屋朝陽親睦會 總務 權文吉 / 西宮市産所町十七 綢緞 布 各種日用品 報商店 安泰云 / 芦屋 永康藥局 韓炳文 / 本山村森三八二 水道ポンプ請負業 朴泳杓 / 井戶掘鑿業 朴海憲 / 三條 李元吉 / 深江 崔鎭桓 / 津知 高[illegible]熙 / 三條 金周秉 / 深江三九九 金神洪 / 深江二二二 崔二桓 / 深江 李江鎬

丙子年을通해본朝鮮
近代門戶開放의煩悶
(四) 文一平

丙子亂後 近代에 이르기까지 數百餘年을 두고 대체로 아모 外患이 업시 지내왓다 風雲이 자즌 東亞强族사이에 끼여잇든 朝鮮이 이가티 오랫동안

國際的 으로 安穩無事하기는 前代에 그 例가 드물든바다 만일 朝鮮人이 心肝이 잇섯슬진대 이 機會에 맛당히 奮發自强하야 크게 維新의 業을 成就하엿슬 것인데 그만 上下가 不自然한 平和에 어리어 治者群은 依然히 날로 黨爭을 일삼앗고 그러치 안흐면 죽은 明나라의 幽靈을 服事하기에 餘念이 업섯스니 北伐의 經綸도 그實은 일은바 尊明大義에서 울어난것이 아니냐 明朝의 遺臣인 [illegible]의 [illegible]號를 빌어다 使用하며 小中華[illegible] 論되엿슴으로 程朱의道統을 [illegible] 繼承한줄로 自負하야 어대까지 小中華乃至 假明人임을 자랑하엿섯나 그리하야 아모自覺이 업시 날뛰는 이들[illegible]人의무리가 大[illegible]을 쌋코

萬東廟 를[illegible]고 [illegible] 맨드[illegible]동안에 『오랑카이』라고 생각하든 滿洲人은 丙子亂을 지내서中原에 드러가 마침내 [illegible]의 文化를 세웟스며 日本人은 壬辰役을 지내서 섬산 에서 드되여 德川時代의 繁榮을 일우엇다 淸朝의文化와 [illegible]의繁榮이 미상불 可取할長處가 잇건만 [illegible]自尊大하는 假明人의 固陋한 眼孔에는 明나라와 程朱學外에 다시는 文明國이나 眞理가 업는줄로 미치기 때문에 종시 남의 長所를 取하야 우리네의 短所를 보태지 못하고 말앗다 그중에 어찌나가 明眼達識의士가잇서서 利用厚生의 必要로 北學을 노는 南[illegible]의 [illegible]를 提唱한이업는바 아니나 이미 [illegible]氣가 이러한以上 一[illegible]의 [illegible]은 컨영 도리어 [illegible]아래 埋葬되어 버렷다 그러나 이것이 한갓 淸朝나

島國 에 對해서만 그리하엿슬뿐 아니라 近代 優秀한 歐美文明에 對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傲慢하게 굴다가 [illegible]을 [illegible]하지못햇스니 可惜한일이다 十五世紀末 우리燕山主때부터 東來하기 시작한 西洋人은 十九世紀에 드러와서 벌서 [illegible]해저 크게 勢力을펴새 東洋諸國이 淸國과 東洋唯一인日本이 모다못잇겨서 차례로門戶를開放하게되바 朝鮮은 다닥치는 이大勢에 反抗하야 어대까지 鎖國을 固執하엿스니 그는 다른까닭이 아니라 思想的關係로해서 그리한것이다 朝鮮의治者階級은 스스로 생각하되 아무리 온世界가 뒤집드라도 一片東土의 彝倫만은 死守하여야 한다고 이런[illegible]下에서 大院君이

西敎徒 의 [illegible]을 行하게 되엇고 [illegible]의 [illegible]退를 行하게되엇다 이때를 當하야 宇內大局에 먼저 눈뜨게 된 日本은 七百年 武家專制를 一朝에 廢止하고 大權을 皇室에 奉還하야 維新의 改革을 피할새 明治新政府가 成立되자 곳 우리朝鮮에 對하야 王政의 復古를 알리주는 同時에 修好의 立約을 請하엿스나 朝鮮에서는 書契의格式이 前日과 다르다하야 受理하지아니하엿스니 그는 일즉이 [illegible]와 交涉할때 보지못하든 皇室이라 皇勅이라하는 文字가 잇슴으로써다 이後에도 明治政府에서 大院君政府에 向하야 交涉을 거듭하기 무릇八年에 미쳣스나 언제나 拒絶하엿고 말게된은 역시 思想關係로 그리된것이니 日本人은 洋夷를 배오랏

곳洋夷 의앞잡이라 그럼으로 日本人에게 通好를 許하는것이 洋夷에게 通好를 許하는것과 마찬가지結果를 生하게되어 西學이 傳染할 危險이 잇다 이것이 當時治者群의 共通한 觀念으로 오늘날보면 우서운일이나 程朱道學의 繼承者로 自認하든 그네로는 또한 그러하지 안흘수가 업다 그리다가 大院君이 물러나고 閔氏께서 政을 하게되면서 비로소 國策이 一變하게되어 雲揚號의 事件을 契機로 江華에서 朝日修好條規의 成立을 보게되엿으니 이로부터 鎖國의朝鮮이 開放의 朝鮮으로 첫 발작구를 試驗하게되엇다。

(寫眞은 申櫶)

學藝

쏘시알리스틱 — 레아리즘提唱後의 朝鮮文壇의趨向
⑥ 安含光

이리하야 現實그自體에 依하야 提出되엿슬터인 素材에對한 作者의 批判眼이 極히歪曲되여잇스며 (例하면 閔甫의農村에로의 移居를 무슨敗北的인 行動인거와나 가리 誤認하는것), 따라서 形象의構成法을 招致하엿고, (例하자면 燒酒瓶은차고온閔甫가 무슨非常的인事件이나 當한듯한

無言 의 悲壯한表情으로 忠浩를다리고 海邊으로나가는場面가튼것), 미처서는 形象의리아리티—라는것을 新聞記事的인信憑性과 結付식히고잇다。(이點은 到處에서 發見될수잇는缺點으로나타낫다)

이리하야 리아리즘이 朝鮮作壇에 寄與한바貢物은 발작크的 또는 졸라的實寫精神으로서의 過度한『手法』以外에그아모것도아니며, 따라서朝鮮의大部分의 作家가 依賴하는바 街頭的現實에의 小主觀的觀居를위한 唯一의安全辯의通路를 提供하여주엇다고하여도 過言이아니고 마이나스的場面만을 演出하고잇는것이다。

이와가티 朝鮮의作壇이 리아리즘을輸入함에잇서 文學以前의 情熱을鼓吹한 골키의車輪을떼어버리고 킬보친의 形象論만을바다드린結果 現今 朝鮮의作壇이 享有하는바 리아리즘의『手法』이라는것도 眞實한 意味에잇서서의偉大한藝術的 形象을위하야는 한개의枯渴된 死骸的인 木片의 役割以外에, 그아모것도 하지못한다는것을 銘記하지안흘수는업다。

보라! 現今에 産出되는바 리아리즘을

憑藉 하는作品의群像을! 그얼마나『貧弱한形象』의行列이냐??

이는 두말할것도업시 作家가 依賴하는바 小主觀的世界의 單純한『事實描寫』가 過大히 置重되는反面에 잇슬수잇는『可能性』의 世界라든가 잇서야할『意慾의世界』가 輕視되는데로부터 招致되는 必然한 結果가 아닐수업겟다。

現今의作家들은 입마하면 過去의創作的企圖—간 作家에게 批判者의完璧性을 要求한 남어지 圖式主義의 誤謬를 招致햇든것에對한 非難은 銳利하게하면서도 그當時의 作家들이 關心햇 的情熱을 놉히評價해야 할마당에서는、斷然緘口無言이다。

要컨댄 리아리즘提唱以後의朝鮮作壇은、文學以前의 情熱을輕視한남어지『現實』이란 것에對한 小主觀的 解釋미테 그가 極히 卑俗하게 歪曲되여잇스며 인테리들의卑屈한 自由性에서 緣由되엿슬터인 이러한『現實』에對한 小主觀的解釋의 無節操와 缺陷된文學的眞實』이라는

漢然 한口呼로서 塗糊되며 잇는것이니 이리하야 確實히 文學의 世界的水準에로의 一步前進으로서 提起된 리아리즘의 精神도 朝鮮이라는 이나라의 文學的實踐에 잇서서는 참다운文學的眞實—客觀的眞實을 그의基底로 하고잇지는 못하다는것을 看破하지안허서는 아니될것이다。

『附記』 나는여기에서 리아리즘과 評壇의關係、다시말하면 그것이 論爭上으로는 얼마나한 解決을갓고 잇느냐하는設問에對한 解答的인 論說을가저야할順序에 기르럿스나、임이制限바든 紙面을 超過한지라、이곳에서는 그것들에關하야 이야기할수 업게되엿슴을 섭섭히생각한다。該論에 이야기한비 作壇의 不純한現象의 原因이라든가、또는 그의救出的方途에 對한 究明도、論爭上에잇서서의 리아리즘의 全面貌를 밝히는데에서만 可能할것이엇슴에도 不拘하고 紙面의 關係로 모다後機로 미루게되엿슴을 거듭섭섭히 생각한다는것을 付言해둔다。(끗)

漢詩 桐崗考選

迎春—押生

三等之一 堤川 嚴允燮

陽春佳節喜相迎
一理循環萬花生
花末放紅先有氣
柳將舒綠已含精
隨時感應無私到
召我分明不見行
回首仰瞻新日月
負暄炙背祝昇平

評曰 深得律體

文學과行動 (二)
林和

다음으로 思惟하는人間、藝術家、文學者 單純히 思惟하고 文學할뿐으로 絕對로 行動하여서는 아니되는것인지를 또한 밝히어야할것이다。

爲先 우리는 文學과 行動、思惟와 勞働을 分離된對立物로 取扱한것은 人間生活의 오래인 階級的分裂에 依하야 發生된文化의 基本的因習이라는『더잇체 이데올로기』의 著者가 設定한命題를 記憶해야한다。

왜 그러나 하면 이著者는人間이란 行爲하는 것을 思惟도서 意識하는 過程 即勞働行爲를가리고 비로서 動物界와 扶別하얏다고、人間發生의 最初의 科學的究的을 遂行하엿슴으로…

이 勞働行爲야말로 猿類로부터 人間에의進化를 可能케한 唯一한要因으로、이것의內容은、勞働用具의人工的製作에서 始作되는것이다。

道具의人工的製作에依하야 代表되는 勞働行爲가、思惟를相伴하는바의 理由는『勞働의經驗과 觀察의結果이며 그것의依하야 必然的으로喚起되는 思惟의發展의 結果』이라고한다。이 思惟發展의原因으로서의 勞働行爲는、다시『엥겔스』의見解에依하면 그道程가운데서人間을 肉體的으로 改造한다는것이다。이肉體의 改造는 道具에 生産에 依한生産行爲—勞働에依하야『人間의손(手)』를 다른 方面에일로부터 解放하고運動의 一層새로운 種類及形態는勞働過程에 復雜化에 應하야그것을 一層 發達』식히는것에對해 依存한다。

그리하야 人間的有機體의 다른部分도 特有한 發達을 遂하야 손(手)은『라파엘의 繪畫나 토—르왈로—르의 影像、바가니—니의 音樂을

魔術과가티 喚起할수잇

는程度의 完全한 精緻』에까지 이른다。

一方現代의 有名한『러시아』의 生物學者『파부로—프』博士는 이러한 肉體的改造가 頭腦에發達우에 더지는 影響을 다음가티 證明한다。

即人間의『손』의 勞働的運動의 複雜化와 分化는 가장 緊密히 頭腦의 發達을促進식혀 身體全體及 頭蓋의直立的 姿勢를助長하며、이것은 또反對로 頭腦의 發達을 더한層促進식혓다고。

그럼으로『勞働은 人間的存在의 最初의基本的條件이며、勞働은 人間그自體를 만들엇다』는『엥겔스』의 命題는 人間만이 가질수잇는 文化、藝術의 太初的起原解明의光明을던지는것이다。

文化는 爲先 人間生活의 産物이다 따라서 그것은 個人的生活의 産物이 아니고、社會的生活의 産物이다。왜그러냐하면、人間이 動物로區別되는 條件인 勞働—思惟의 行爲—의 發達이 社會成員의 一層 緊密한 結合을 助長한것은、勞働의 發達그것으로 因하야 相互的支持의境遇가

頻繁해지고 그것으로만

人間的協同活動의 條件이 賦與되는 때문이라고한다。

그럼으로 一切의 思惟의 根本的表象인、言語가 勞働過程內의 人間의 相互的接觸의 行爲가운데서 發生 하엿다는『엥겔쓰』의 思想이 이곳에서 可能하다。

即 生産過程中의 肉體的運動과 頭腦的思惟와 言語가 不可分의 三位一體로서 生時에 發生한것이다。

이러한 三位一體說에 言語學的 確認을與한것은 年前에 死去한 蘇聯의『야페테學者』이言語學派의呼稱—『N·Y·말』이다。

그의 所說에依하면 人間의最初의 言語는、現在에 보는것과 갓치 一般的 行動으로부터 크게된 發聲言語가 아니다、最初의 勞働行爲 가운대서原人들이 肉體的動作을가지고 演作한『可視的인交通手段』이나 動作言語』이라는것으로、이곳에는 行爲와、思惟와、言語가、渾一히 融合된 狀態이라는것이다。

그리하야 思惟가 勞働과不可分의것인것과마찬가지로、N·Y『말』은『言語는 思惟와不可分의 것이며、言語는思惟와함께、存在하고、思惟의外部에 言語는 업다고 斷言하엿다。

即 言語는

最初로부터 思惟와勞働

(人間的行動)과、社會生活과、不可分의 關聯가운데 發生하엿스며 이것들을 그內容으로하고同時에 表出手段으로하는 文學藝術이 勞働—人間的行動—과完全히 同一者的이엇슴을 證明한다

그럼으로 文化、藝術까지를包含하는 思惟는 人間的勞働行爲를 그內容으로하는 社會的環境에依하야 創造된것이고 社會的發展에依하야 制約되는 發展途程을 지내서 今日의 일르럿슴을 理解하기에 어렵지안다。

이곳에서『칸트』로부터始作하야『푸레하노고』까지를 그 影響下에 너흐면서 今日 美的自律性의形而上學的美學에까지 이르는、藝術의遊戲起源說은 放棄되는 것이다。

왜그러냐하면、美學에 잇서서의『物自體』의哲學인、藝術의勞働起源說에

反對라하는 一切의學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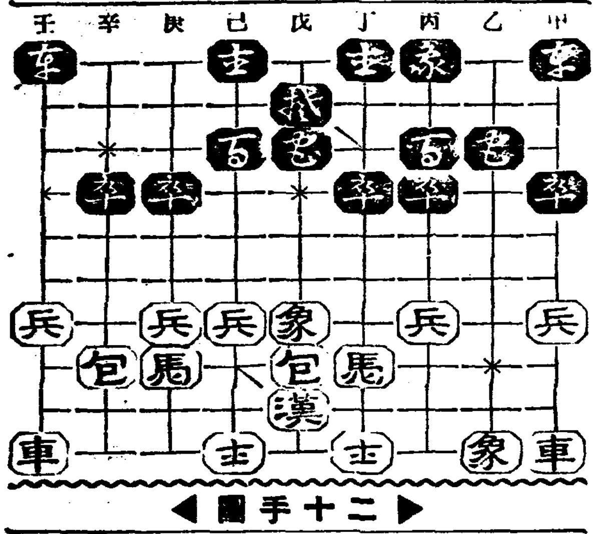
(그들은 結局에잇서서 不可避的으로 人間의 遊戲本能說의 亞流이다)은 思惟及文化의 歷史的事實과 一致하지 안흠으로!

그러면 思惟와勞働、文化、藝術과行動을 二元論的으로 分離하는 思想은 어떠케하야 發生하엿든가하면 그것은 人間의 歷史의 特定한 時代의 社會的環境가운데서 總容된 人間의思惟의 一性質로서 그것은 結局으로는 肉體勞働과 精神勞働의分離에 依하야 特徵되어잇는 市民社會의 所産인것이다。(끗)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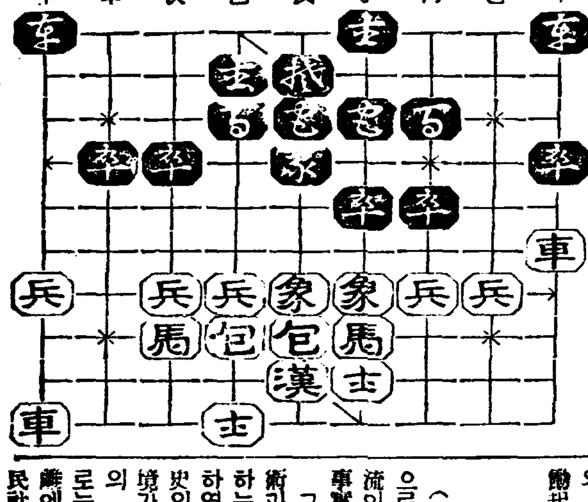
楚 先手 李在鳳　漢 丁奎東

◀十手圖▶



◀二十手圖▶

丙一[●]—戊四
甲七兵—乙七
乙三[●]—丁三
乙十象—丁七
丙[●]—丙五
辛八包—己八
己一[●]—己三
丁十士—丁九
丁[●]—丁五
甲十車—甲六



大邱

鄭雲用

大邱府七星町 朝鮮麵子製造株式會社 電話長五八〇番 振替釜山三四九四番

南町 徐丙國

大邱府京町三 辯護士 成升鎬 電話一〇二九番

大邱商工會議所內 慶北鑛山協會 會長 金台原

東城町三丁目 大邱運動具店 電一四七九番

京町一ノ五 張基相

辯護士 崔斗煥 大邱府京町一丁目七六 電話大邱二九八番

ナショナル松下電器代理店 丸山電氣卸部 大邱府本町二丁目

大邱布木商協友會
本町二丁目 泰昌商會 電話一〇三番
南城町 日興商店 電話一六一六
市場町 太白商店 電一五七四
京町二丁目 宋南吉商店
德山町 林福秀商店 電一三六一
市場北通 金貞壽商店 電一四二二
本町二丁目 白基祥商店
市場町 林敬德商店 電一三一
市場北通 金潤鎬商店 電一〇二
市場町 崔鍵潤商店 電四八九
市場北通 陸致雲商店 電七三三
本町二丁目 池二洪商店 電八八八
本町二丁目 金昌錄商店 電三八

島田金四郎

大邱旅館組合

德山町 大東食道園

京町二丁目 群芳閣

八重垣町 望月館

八重垣町 朝日館

金時權

八重垣町三 第一明月館 第二明月館

大邱新川洞 南鮮染色所 崔[illegible]

東門町三丁目 賣藥卸販賣 加[illegible]光堂藥房 電話一〇九 振替京城一五〇九八

西千代田町四五 蔡古佛心

壽町八七 綢緞布木 大南商店 電九七八

上西町 崔鍾達

壽町四〇 張德均

大邱映興商會

東村醫院 裵廷佑

上西町二十一 朴鍾勳

南町 文化旅館

南城町五二 白山醫院

進永

昭和館 主 金鐵元
料理部 (妓生)錦仙、玉仙、玉花、梨花、秋月、山紅、小香、紅桃、明月
カフェ部 (女給)貞子、白合子、玉子、菊子
昭和旅館 主任 李德順 明月

進永面長 金潤爽 外面職員一同

大山面長 文龍瀚 外面職員一同

二北面長 崔善宗 外面職員一同

進禮面長 宋世允

進永公立普通學校 校長 波多野宣義 外職員一同

檜林亭驛前 二林產業組合 組合長 李晋[illegible] 理事 [illegible]順奉

000081

慶南進永 進永產業組合

木山產業組合 理事 徐有聲 電話(守山)八番

トラック運輸部 進永印刷所 主 安承運

進永酒造株式會社 社長 姜元錫

進永酒造株式會社 取締役 姜夢碩

昌原驛前 精米業 姜且守

迫間進永農場 電話九番

進永驛前 穀物雜貨肥料叺業 釜山共榮商會 進永出張所

進永驛前 太平旅館 主 尹甲順

進永消費組合

⊙進永運送倉庫株式會社 取締役 金容德

進永面協議會員 土井秀邦

進永酒造場 主 金興均

慶南進永 進永醫院

光信洋服店 主 孫明復

大同旅館 主 安榮達

進永金融組合 理事 金永守

進永金融組合

慶全南部線進永驛前 冬期酒類 食料品雜貨 專賣 東星商店 主 李元祥

昌原旅館 主 金玉田

慶南進永 南山醫院 院長 金鳳勳

年賀欠禮 進永公立普通學校[illegible]

裵中欠禮

進永面 區長親睦會一同

綢緞布木商 宋潤弘

金海學校評議員 金正祚

成功堂菓子店 製菓製油 石油販賣 主 金龍福

肥料原料 金鐵柱

綢緞布木 和洋雜貨 日榮商店 主 朴泰根

進永商店 主 府相俊

穀物肥料 金興洛商店

進禮面松亭里 司法書士 魚允江

大山面加述酒造場 主 金潤坤

進永面協議會員 馬場崎德治

明川

朝鮮咸北明川郡下加面屯田洞 果樹苗木 農產種子 園藝藥品 農具一式 古新聞紙 貿易商 共榮種苗園 主 董淇松

明川郡上古面開心洞 明川七寶金鑛 主 廉義龜

明川郡下加面花台市 許勳哲 許昌瑞

明川郡上古面仲坪洞 鄭允官

明川郡上古面仲坪洞 有志 張天義

明川郡上古公立普通學校 校長 朴義鎭

明川郡上古面古津港 李愚謙

明川郡上加面 面長 金德善

明川郡下加面花台市 楚基英 黃鍾夏

明川郡下古面東湖洞 黃河一

明川郡上古面保村洞 金東郁

明川郡上古面開心洞 七寶旅館 主 鄭熙

明川郡上古面仲坪洞 鄭斗興

明川郡上古面金融組合 副理事 李宰

明川郡上古面仲坪洞 張[illegible]

明川郡上古面 面長 鄭東奎

明川郡上古面明德普書堂 堂長 申泰文

明川郡上古面仲坪洞 姜今俊

明川郡上古面浦下洞 荷坪共信商會 浦下分店

明川郡上古面浦上洞 半田農林合名會社 明川事業所浦上出張所 林河龍

明川郡下加面黃山洞 明川下加面海上醫院 院長 千浩鳳

黑風 【221】

韓雪野 作 金熊超 畫

참사랑 (五)

어느덧 봄이 왓다 왕한은 적은나무나 러밧대기에 나무새도 심으고 곡식도 가랏나 창순은 왕한을 도아서 그러한일을 거들기에 여가가 업섯다 그들은 서투른솜씨로 농사일을 하기에는 젓지리비는 무서이 한두가지가 아니엇지마는 부지런하고 정성껏함에는 도로혀 익숙한 농부들보다 나흔편이 만하얏다 그들은 아침에 일직 나와서 들에 가득한 소모는 소리와 곡식심으는 노래를 드러가면서 풀을 뽑고 밧곡을 가꾸는것이 여간한 재미가 아니엿다 채소와 곡식은 매년 매어줄수록 거름을 주면 거름을 줄수록 자라다가 봄人비를 한번 지나면 그것들은 어대서 온것처럼 몰나볼만치 와짝 자랏다 왕한과창순은 그러한것을 볼때에는 뭐고 부르지마지 깃부고 재미잇섯다 비개인 아침에 방읍을 들너보는때는

「저것좀 보서요 어쩌면 하로밤 새이에 저러케 몰나보게 자랏슬가」

하고 창순이가 놀나고 이상한듯이 손으로 밧곡을 가리치면서 말을하면

『그러기에、매주고 거름준네다 비를 마지니까 그러케지라문이오』

하야서 왕한이도 역시 깃버하얏다

『아마 이동리서는 우리밧이제일될것 가튼데요?』

사방을 둘너보다가 자기의밧곡이 특별히 성하게 되것을 보고서 창순은 말하얏다

『아마 그럴는지도 모르지오다른사람들은 농사를 만히지으니까 럿밧만 거들수가업고 우래는 농사라구는 어깃에이어서 늘 매달녀 잇다십히 지니까 더 잔자미것이지오」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하며서 방옥을 거려서 도라보다가 풀이잇으면 풀을 뽑아주고 베에 쓸린것이 잇으면 일켜세워다 이웃에서 들리는

「이라저저」

하고 소모는 소리라든지

「호미 하나 더가지고 나오게」

하고 뒤에가는 사람에게 브탁하는 말이라든지

「점심에는 막밥을 하고 새참에는 술을 가저와요」

하고 마누라에게 당부하는말이라든지 그러한 소리들마니이 예서 재서 나는것을 드를때에는 진실로 태평성대엿다

「우물파서 마시고 밧가라서 먹으니 인군의힘이 나에게 무엇이 잇너냐」

하는 소래를 옛날의 격양가에서만 드를것이 아니라 그것을 곳 눈으로 보고 귀로 듯는것이엇다 그러고보면 국가니 사회니 현명이니 하는등 시끄러운일은 일조아하는 고해중생들이 할 일이오 이러한 신선한일을 하는 농부들은 알ㅅ바가 아니라고 할만큼 동이 떠러지일사댓다、

왕한이도 지래로 하야오든일을 이저버리고 새로 신선생활을 하는것가티 생각되얏다 왕한이가 본래 궁촌에서 생장하야 농촌생활을 모르는것이 아니엇스나 가튼 농촌생활이면서도 그때와 이때가 판이하게 달엇다 그때는 나이 어뎟슬뿐아니라 구차한 살림에 책생을 넘으로 농사일을 하자니 귀찬코 괴로운 생각뿐이어서 아모쪼록 그것을 면하라고 하얏지마는 지금은 여러해를 두고 위협하고 신산한 생활만을 게속하다가 한가한 겨를을 어더서 몸과 마음을 쉬일뿐아니라 사랑하는 안해와 순진한 사랑을 속삭이면서 생활문제로서가 아니고 취미로서 몃두둑의 밧농사를 짓는것이므로 거기에 대하야 조금도 불평과 고통이 업슬뿐아니라 그와가치 안락한 생활이 되는것이엇다 가튼사람으로 가튼일을 하면서도 환경과 시기를 따라서 거기에대한 감정이 정반대로 변하는것도 사람으로서 면하기 어려운 일이엇다 왕한은 창순과가치 낫이면 밧헤가서 일을하고 밤이면 끈히자고 틈틈이 글도보고 산보도 하면서 사랑의 동아줄을 굽처 드려서 이간만사를 한줄에 묵거버린것처럼 다른생각은 별로 업섯다

라디오

九日 (木曜)

◇午後六時 四重奏 京城四重奏團

◇同六時二五分 記念講演 갈닐레오의思想과時代 趙炳俊

◇同七時三〇分 講演 新年의展望(七) 具滋玉

◇同八時 平時調外 一、平時調 二、寧邊歌 三、山念佛 四、방아라령 五、도라지打鈴 六、靑春歌 玄山玉 洋琴、李承煥 細笛 高毅德 短簫、崔壽成

◇同八時三〇分 피아노獨奏 소나타 E短調…루빈슈타인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아파쇼나토 第二樂章 안단테・라르가멘테 第三樂章 모데라토 第四樂章 모데라토

◇同九時〇分 純談이야기 J・B・스루데니 柳寅成

十日 (金曜)

◇午後〇時五分 (東) 吹奏樂 一、行進曲「祝賀」…베-토-벤作曲 二、交響曲「軍隊」…하이든作曲 第一樂章 아다지오・알레그로 第二樂章 알레그렛드 第三樂章 메누엣트・모데라-토 第四章 휘나-레・프레스토 陸軍戶山學校軍樂隊 指揮樂長 岡田國一

◇同三時一五分 婦人講座(五) 家庭改良 朴正淑

◇同六時 三重奏(二回) 一世界音樂巡禮一 京城三重奏團

◇同六時二五分 記念講演 하이든의創作世界 李鍾洙

◇同七時三〇分 講演 新年의展望(八) 徐椿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天歌 二、唱劇調 楚漢歌 丁正烈 鼓手 韓成俊

◇同八時三〇分 平壤歌外 一、平壤歌 二、博物打鈴 三、겨양가 四、金剛山打鈴 五、開城難逢歌 六、양산도 崔貞植 細笛 李忠善

◇同九時 音律 靈山會像 玄琴 李彦稙 洋琴 李承煥 奚琴 池龍九 短簫 洪斗憲 細笛 趙載弼 杖鼓 李章夏

十一日 (土曜)

◇午後〇時五分 興民樂外 一、調會像 二、吹打 三、興民樂 玄琴 金雨塘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三時一五分 婦人講座(六) 家庭改良

聽取者五萬突破記念프로 (第一日)

◇同六時 (全日本中繼) 朝鮮의正月노리風景―京城府太平通京城府民館으로부터中繼― 一、늘뛰기 二、윷노리 三、踏橋 京城府外往十里有志

◇同六時二五分 時事解說 高義駿

◇同七時三〇分 獨唱 헨델作品 네曲 一、오장웨나를버리나 二、눈이어두워 三、아픈마음 四、天使여엽부다 玄濟明 피아노伴奏 AL뻬키

◇同八時 歌曲 一、界面初數大葉 二、界面初擧 三、編 四、編 五、太平歌 河圭一 安鶴仙 玄琴 金雨塘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三〇分 歌謠 節妓松伊 玄哲 洋琴伴奏 崔壽成

◇同九時 도라지打鈴外 一、도라지打鈴 二、노들江邊 三、靑春歌 四、방아打鈴 五、노래가락 六、唱夫打鈴 李眞紅 細笛 高毅德 短簫 崔壽成

曆

一月十日 (金) 十二月己丑(小)十六日 辛卯・木・亢・滿

●祭祀에宜함

●小寒六日(舊十二日)

●大寒二十一日(舊二十七日)

謹賀新年

鐵原

鐵原警察署中島署長 鐵原警察署職員一同

鐵原郡廳 鐵原郡農會

乃文面職員一同 北面職員一同 於雲面職員一同 葛末面職員一同 東松面職員一同 新西面職員一同 畝長面職員一同 寅目面職員一同 馬場面職員一同

回山公立普通學校 於雲公立普通學校 文惠公立普通學校 東松公立普通學校 鐵原公立普通學校 大光公立普通學校 畝長公立普通學校 寅目公立普通學校 石橋公立普通學校 乃文公立普通學校

御料理 旭日館 大和館 大成館 大正館 廣嶋屋 柳屋

御宿 中央旅館 錫山旅館 關東旅館 鐵原館 金剛館

協成堂藥房 李鍾商 申寅徹

協成醫院 救世醫院

鐵原邑協議員 金應煥 永山偕行 李丙興 尹德昊 植田春見 朴贊圭 柳榮益 朴顯洪 朴寅遠 金周鎬

鐵原邑事務所 職員一同

德元商店

東信商會 主 金應玉

鐵原邑消防組 鐵原驛前消防組

鐵原稅務署職員一同

鐵原驛職員一同 東鐵原驛職員一同

京城地方法院鐵原支廳

鐵原郵便局員一同

道評議員 李德一 朴普陽 小宮山八郎

江原道立鐵原醫院

第二金融組合職員一同 東州金融組合職員一同 鐵原金融組合職員一同

殖產銀行鐵原支店 職員一同

鐘淵紡績株式會社 鐵原製絲工場

中央水利組合 於雲水利組合

江原繩叺株式會社

金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

鐵原自動車部

天壽釀造場 主 鄭學天

鐵原酒造組合

雨一釀造場 主 黃德文

丸原商店 主 尹德昊

共益商會 主 李丙興

六合商會 主任 金敬秀

和信連鎖店

金剛百貨店 主 趙尙協

平安洋服店

鎭興

兄弟商會 主 金根燮

中央商店

進興商店 主 李亨植

鐵原婦人商會 主 金學彬

晶和堂 主 李培根

京元線月井驛前 德興商店 主 黃李秀

三興商會 主 崔英範

尹學鎭商店

崔俊天商店

金容玉

辯護士 高運河

學校評議員 李敬台

鐵原紙物舖

シンガ-裁縫會社鐵原分店 主任 趙昌九

耕德面大淑里 北鮮鑛山 李淳贊 金翰容

仁興面香峰里 興化鑛山 蔡容默

鎭坪面鎭興場 成南道評議員 趙昌元

旺場驛前 永平金山 李鍾萬

小德金山 原參治 高成錄 劉繼璉

億岐面瓦隅里 住友仁興金山 主任 高橋秀實

億岐面德下洞 永興學校評議員 金瀅樂

億岐面協議員 億岐公普學務委員 黃芝洙

鎭坪面龍山里 金衙柏

鎭坪面天晶里 永興郡學校評議員 金貞武

成南鎭興釀造場 尹大憲

成南鎭興驛前 馬場釀造場

鎭興金融組合長 朴濟憲

鎭坪面輪洞里 輪洞製錬所 金相愚

馬場鎭興場 鎭興繁榮會

虎島面事務所 職員一同

鎭興消防組 組頭 山本政次郎 副組頭 張寬厚

鎭坪面鷹峰里 安興鑛山

成南永興鎭興場 永興產業組合指定 鎭興苦子商會 主 姜承伯

鎭興商務組合 組合長 張寬厚 理事 李國一

仁興面浦中里 仁興公普學務委員 金南極

成南鎭興市 物産器 金物商 兄弟商店 李根厚 李根成

鎭坪面鷹峰里 南石鑛山 李廷植

鎭興場自動車部 鎭坪面 金融組合評議員 尹秉濟

鎭坪面搭島里 捕具捕魚組合員一同

鎭坪里永河里 成一金山 陳泰淳

永興郡古寧面 藤山鑛業株式會社 三峰金山 趙南基

鎭興場 金昌烈商店 黃載賢 姜興振

馬場驛前 馬場醫院 金秉煥

鎭坪面 職員一同

億岐面事務所 職員一同

億岐面協議員 朴昌林

鎭興郵便所長 原參治

鎭興場 穀物商 鄭宗九 張宗達

虎島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鎭坪面鷹峰里 南石鑛山 用達部 金文明

鎭興場 綿木商 韓弘傑 鄭義烈

古寧面事務所 職員一同

柳島捕貝組合 組合長 韓光輔

馬場驛前 金星洋服店 金榮濟

鎭興場 米穀 貿易商 鎭興商會 韓鴻元 鄭元河 韓炳烈

米穀貿易商 金東七

仁興面內南里 高元昕

鎭坪面輪洞里 朴斗燮

鎭坪面鷹峰里 南石穴鑛山 金始用

鎭坪面輪洞里 全成道

鎭坪面寶幕洞鑛山 趙成龍

鎭坪面輪洞里 張禮鳳

德興面安佛寺 朴贊範

朝鮮運送株式會社指定 代行營業所 朴漢榮

鎭興專賣局販賣所 南相圭

古寧面蓮洞里 金正寬

古寧面加淮里 白贊相

鎭興場 綢緞 高益鉉商店 主 高益鉉

鎭坪面鎭興場 大坪淸太郎

鎭坪面永河里 洪允濟

鎭興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鎭興場 鐵物 洋品雜貨 李成商店

鎭坪面搭島里 李正淑

鎭興場 和洋雜貨 精一商店 金會權

鎭坪面輪洞里 鎭業 朴鍾淑

鎭興場 天野米店 朴鳳相

鎭坪面永河里 邊珏祚

鎭坪面鷹峰里 金定勳

鎭興場 日用雜貨 元興商店 孔性極

鎭坪面鷹峰里 朱仁祚

朝鮮日報鎭興支局 劉應鍾 李東燦 尹中杰 寫眞班記者 李龍翼

城津

城津金曜會

城津邑旭町 和洋雜貨 高級雲丹製造卸元 丸京洋品店 丸京雲丹工場 電話一〇七番 丸京大阪支店 電話六一五一番

城津邑旭町一四 城津畜產株式會社

城津自動車株式會社 本業城津、城津農業社 (市內定期貸切) (松興溫泉、花台方面定期) (業億溫泉、大新里行定期及貸切) 城津驛前

城津邑本町 夏目十郎兵衛

城津邑旭町 海岡精米所 主 李泰淵 電話二六一番

成北城津邑旭町 印章彫刻 名刺印刷 附屬一式 三春堂 徐春長

城津邑本町 中央釀酒合名會社 代表者 朴正鳳 電話一四三番

城津郡公立學校長一同

城津邑旭町 金聲宇醫院 電話二一二番

城津邑旭町 綿絲布帛 最新帽子 文房諸具 作業服及 總ゴム靴 商入輸直 榮澤商會 本店 支店 榮光商會 旭町二丁目 榮和商會 旭町漢泉橋通

城津邑本町 印刷業 鶴文堂 電話八番

城津邑旭町 鐵道枕木 電柱 杭丸太 一般製材 販賣業 須川洋行

咸北城津港 崔鶴雲製材所 電話長二四一番

城津米穀商組合 長電話二五七番

城津邑旭町 米穀 原鹽 苫子 石油 機械油及 魚肥製造 昌盛商店

城津 濟泉醫院 尹致魯

中央醫院 醫學士 康亭哲

城津邑本町 金在洙

城津邑本町 康仁熏 電話(長)二九番

城津邑本町 道會議員 柳鍾夏

城津郡城津幸町 城津灣漁業組合 組合長 北川三策 理事 森野喜代重

城津邑本町 海陸運輸部 電話四五番

城津旭町 六一〇ハツプ 星泉湯 電話一一三番

城津本町驛前 金齒科醫院

朝鮮咸北城津旭町 雜貨卸商 東亞今店 電話一四八番

城津元城金融組合 山本準佐久

城津邑旭町 金有根

咸南道內冷害對策 間接救濟로成案? 土木、砂防等工事를實施하야 尨大한豫算容認이問題

【咸興】함남도 랭해재민 십오만여명의 구조책에 대하여서는 일찍부터 관계각과장들이련일지사실에 참집하여 종종숙의를 거듭하고 잇던바 이번그최후적결정을 지울려고 지난사오일 량일간 좌좌목 내무부장(佐佐木)은토목 농무지방사업과장등이 구체적 협의를하엿다는데 그결정한 내용에대하여서는 일체엄비에 부침으로 알수업스나 당초의 방침인 토목공사를 시행하여그로써 산포되는 로임으로 구제하려고 하는결정안을 본모양으로 예산은대개 도로항만하천개수공사등 토목공사에 약백만원사방공사(砂防工事)에 약오십만원 도합일백오십만원가량이 되리라고하는데 과연총독부에서 어느정도까지이 예산을 용인할는지 목하극히주목된다고한다 그리고 목하관계각과에서 경비기타세목의점에대하여 연구를거듭하고 잇는중인데 이것이모다결정되는대로大내무부장이 상경하여 승인을구하게될것이라고한다

工事着手時期는 解氷期인五月頃

별항! 십오만여명의 랭해재민 구조책에 대하여는 전긔한바와 가티 일백오십만여원의 경비로 각종공사를 시행하기로 되리라는바 해공사실시기간은 일러도 금년봄 즉 오월초순경 해빙기(解氷期)에야 착수하게 될터이라고하는데 이러케되면 제일요급한 일월부터 오월경까지 오개월동안은 전혀 구조의손길이 밋칠바 업슬것이니 당금 식량이 전혀 절핍되어 혹한과기아에 빠지고잇는 리재민들의 살아갈길이 막연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야는 목하 당국으로서도 구근할길이 업다고 하며오직 관공리를 우시하여 일반사회 유지들의 동정과 또한 린보상조(隣保相助)의 길밧게더업다고하니 더욱한심한상태이며 일방유지의 엇기지안흔 동정을바랄뿐이라고 한다

冬寒間救急은 一般義捐으로

이에 대하여함남도청에서는제일선으로 아래와가티

高等官 百分之一 判任官二百分之一 雇員 三百分之一로정하여 이달부터 이월까지 이개월동안 봉급중에서 제하여 리재민구제금으로 보낼터이며 각군청부청에도 륙일 전긔와가튼 구제금거출을 통달하엿다한다

附屬普校學級問題로 當局者間意見不一 近近第二教育部會召集

【平壤】관립사범학교부속보통학교의 신설은 명신일년도에 총독부에서 구개학급의 경상비만을 계상하고 교사기타의 림시비는 평양부에서 긔부케하기로 하고 진천(津田)교장은 고교(高橋)부윤과 교섭을 진행중인데 부로서는 조선인아동의 입학난을 완화코저 십이학급을 희망하고 잇스나 총독부측에서는 십이학급의 부속보통학교로 하드래도 경상비는 구개학급분만을 계상하고 남는 삼개학급은 부에서 부담할것이라고 주장하여 어데까지나 구개학급안을 내세우고잇다

또립시비의 교사、강당등의 설비비도 총독부안에의하면 설비의완전을 목표로하여 최저십일만원강을요하나 부로서는 보통학교신축에대한 과거경험에따라 팔구만원이면 충분하여 여기에도 상당한 거리가잇서 아직 쌍방의 의견의 일치를 보지못햇스므로 부리사자로서는 최근 제이교육부회의 간담회를 열고 의원의의견을 들은후 다시 사범학교측과 교섭을 진행키로 되엿다 한다

四回今平壤市民 氷上競技大會 一月十一日午前十時부터 —本社平壤支局後援—

【平壤】평양 련광구락부(練光俱樂部)에서는 십일일오전열시부터 본사평양지국후원아래 대동강련광정하류「링크」에서 제사회전평양시민빙상경기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여 준비에 분망중이라는데 경기종목은

▲五百米▲千五百米▲五千米▲一萬米▲背進五百米▲二千米릴레이

등륙종목으로 이천미「릴레이」를 제외하고 매인삼종목에 한하기로햇다 참가신청긔일은 십일정오까지로 참가금삼십전을첨부하여 부내순영리(巡營里)조선일보지국과 조선양복집(朝鮮洋服店)에 신청하면 조타고한다

한地方 한問題

社會施設號

歷史의都市義州 古蹟과國寶의保存이急務 有志奮起와當局의一考를促함 —新年마지의첫要望—

【義州】義州는 海東의 關門이요 國境의 要衝이니만치 悠久한歲月에 경난된 波瀾을經한 戰亂의古蹟과 더구나 李朝와는 不可分離의 關係가잇서서 太祖의 回軍으로 韓國의 基礎를열고 宣祖의蒙塵으로 中興의業을 일우고 純宗의西巡이 李朝의 終을告함도 一種의 奇緣인同時에 國寶的 價值를 가진者도 實로一二가 아니다 檀君과 扶餘時代는 考究할수 업지마는 高句麗에 들어와서 第九世目인 故國川王때의 名相인 乙巴素氏는 義州左勿村에서 밧갈든 한낫匹夫로서 그외 明政敎、愼實한 赫赫한 功績이 中國의 諸葛孔明처럼 鴨水와한가지로 千古에흘르지만 頹敗한孤境에 그의偉蹟을 傳할만한 短碣조차업스며 荒凉한古祠가 비록風雨를 가리우지못하나 村氓들의 무무한獻誠이 오히려前賢不忘을 傳할뿐이다。

그러고 義州城은 國內城이라고도 傳하지만 이것이 史家들의 研究範圍內에서 除外되지 오래니만큼 國內城이라 臆斷할수 업지만 假使 國內城이 아니라할지라도 高句麗를 前後하야 王都이엿든것만은 不誣의 實證을 들수가잇다 口傳으로 傳해오는宮城자리와 別宮터에 修理가 井然不亂한 礎石의 排列이 松都의 滿月臺를 본듯한것처럼 純粹한古人의 遺跡을 차즐수잇스며 더구나 千井으로 傳해오는 遺墟에는 아무리 樵童牧竪일지라도 敢히牛馬의입을 그물에먹이지아니함은 不言의 敎가 아니랄수업다

宮城터

의 礎石은 無知한 農軍들의 移動과 自然의埋沒이 예일을을 찾기가 어렵지만 別宮터만은百餘의 礎石이 녯날그대로 잇다

그리고 柳韶의 國境長城과林慶業의 白馬山城이며 建物에잇서서 契丹保州時代에 統軍의 称衆으로 宣祖駐驆時에 聽吳樓山月、傷心鴨水風을 읇든 統軍亭 李太祖의 威化回軍의 記念物인 龍興廟、宣祖께옵서 起居하시든 聚聖堂과 翊原堂(現文廟)、天主敎가 맨처음 朝鮮에들어올때 通過한西水門인 邑波樓 平西大元帥洪景來를 破하고 그記念으로 된 義會堂 그밧게 來蘇樓、來宜閣、百一院、鐘閣、顯忠祠等 實로 枚擧키難하매 今年丙子와 김은關係가 잇는 金淸陰、林忠愍의紳銘은 無知한市童과 不良의徒輩가 함부로 뚜드려부시지만은 別로 근심하는이업고

遺墨

에 잇서서 名人名蹟이라는이보다 國寶라할 英祖께서 聚勝堂記念으로 下賜하신 遺墨은 그所를 찻지못하고 論落轉轉하고잇스며 純宗께서 西巡時에 翊原堂遺址에 翊原學校를보시고 그記念으로 下賜하신 遺墨은 鄕校倉庫뜨물속에서 同腐하는것을볼때에 所謂當局者의 厚顔도 厚顔이려니와 人士들의 無恥도 이에서 더極하랴!

그러고 古館의 丘陵과倣似한 女眞古墳과 玉尙의 第二地下金剛일 吉洞窟도 實로 버려둘바 아닐뿐더러 當地에 有力家나 有志者가 업는바도아닌즉 우리義州에 잇서서 아무리 밧븐問題가 만타할지라도 于先保勝會가 든것을 組織하야

이方面

에關한 施設과 保存方針을 講究하는것이 急務中에하나일것이다 義州有志여! 奮起하야 이事業에邁進하자! 新年을마지함에 際하야 一般有志의 奮起를要望하는同時에 當局者의 一考를 促하는바이다

義州支局 一記者

都市發展따라 郵便局이必要

【井邑】全世界를通하여 政治上으로는國家와國家間의對立 各地方으로는 經濟的으로 各自立場에서 個人과個人間對立의鬪爭이 或은存立 或은破滅이 兩極端에서 歸結或은未成된채로 複雜多端하여온一九三五年도 大自然의進化法則미테 움직이는 歲輪轉廻에依하야 於焉의終幕이되고 二十世紀現代科的學推進力에 相符하야 各已各自立場에서 過去를批判하여 經驗과信念으로 目的을達成하려는一九三六年 卽有意期待한 今年을 마지한 今日에잇서서 糊塗의誠質를 하는바이다

人間은 一生環境을 調理함이 잇서서 그날그날 必要의行爲를 工作하느니만치 今日에다하지못한 問題라면 明日에成遂를하여야할것이며 今年未成事를 肝要의事라면 明年에 期於히 成하여야만한다 國家問題도 그러하고 地方問題도 그러하지마는 個人問題에 잇서서도 部分에 區別의差가有할지언정 其實은 同一한것이다 그럼으로 筆者는本地方에잇서서 一重大問題로서 行政當局又는 一般商界及 有志에서도 不滿과話題가되여 近十年을 지내도록 空談口說에 歸結이되고 行政區域의 擴張과各商工機關의 發展하여가는 過程에잇는 前日이아니고 全北에잇서서 第四位의 都市가 되는今日의 井州邑內에 時時刻刻으로都市全面에 心臟役割의 重任을가지고잇는 通信機關이 一個人營利機關에止하야 이에伴하여 通信의遲緩關係 取扱의不敏活等等의現像이 非一非再하다는것은 間或 目睹하여今會뿐만아니라 全市民의 周知하는바이다 郵便所는 個人營利觀念에 存在하기때문에 一은 經費의節約 二는部門設置의狹少 三은 所員小數俊役으로 因하여 以上과如한 事實이 全的日常生活人間의 利害關係를釀出하는것이며 一般都市發展에따라 相役機關이 되여야할 通信機關이 못된다면 이것은 한個人을 爲하여 全的으로 犧牲當하는것이아닌가한다

이러한點에잇서서 地方에서는 五六年前부터 郵便局設置運動의 烽火를 든적도 四五次잇섯스나 結局은 龍頭蛇尾에 끄치고 마럿다 그러나 井邑의飛躍的發展은 適所在時期와는 判異하여저서 邑民의希望으로는 發展의當當한 步武를 것고잇는關係上 再昨年부터 官民間을勿論 郵便局設置必要를 力說口傳하고잇서서 方今邑議員某氏는 本邑發展과 一般의宿願에副코자 全的運動論을强調하며 實行要請의 達成을 畫策하고잇서서 一般의 贊意가 十中八九로 歸應하여지고잇는바 今年에와서는 地方의가장重大問題가 아닐 五六年間全市民의宿望을貫徹코자 猛烈한運動이 이러나리라는바 끄트로 新年을마지하며 新銳氣를 내여 過去의宿望을 貫徹하기를밋는다

歷史的由緖기픈 葛山溫泉의施設 伊川發展上大急務

【伊川】地理上關係로보든文化施設에뒤떠러진 우리伊川地方에 잇서서 다만天惠의寶貝인 葛山溫泉施設이야말로 四百餘年前李朝世宗大王의꿈속에 上八水 下八水의곳에 有名한溫泉이잇으니 그곳을 차저가서 全身의皮膚病을 곳치라는 現夢으로 비로소어든 伊川郡葛山溫泉……山깁고 물맑은것이야말노 朝鮮的으로 比類가업슬만하며 總督府에서 分析한結果 적어도東洋의 至寶라고 할만하다고한 葛山溫泉이 좀더交通便利한 鐵道沿線에 잇섯드라면 그일홈조차 世界的으로떨처졋슬것을 어이그리 伊川山國에 隱在하야 그일홈을 널리날리지못함이 千秋의遺恨을마지안이는바 伊川의唯一한 發展策으로는 葛山溫泉施設과 宣傳如何에 至大한關係를 가지고잇스며 四百年間 王家의偉力으로서 지어든 宮殿의자최는 四百餘年의긴 史的由緖를 은근히말하고잇스며 오고가는 갈매기만 無心히 恣然往還에서 지저귀는데 伊川에 事業家가 잇다면 좀더 葛山溫泉의存在를 알렷슬것이나바 現在로는 平康驛 福溪驛 東京驛 金剛驛 南川驛에서 舟日自動車가 通行하나 交通도 좀便利하야겟스며 溫泉의施設도 遊樂으로 하로밧비 葛山溫泉婦一棗會가 實現되야 京城驛을 비롯하야 宣傳看板과 溫泉의施設完充을 다하야 안지방이 어려나고 조막손이 손퍼는 靈驗잇는 葛山溫泉 内로實現되기를바라고 實現되고 안되는것이 반다시 住民의 뜻거운힘에잇슴을 말할뿐이다

伊川支局 一記者

綾州의最急務는 大衆診療院創設 新年들어緊切한要望

【綾州】新年을마지하면서 우리綾州의 所願을말하자면 非一非再이다 그러나 敎育方面으로보아 普通學校는 新春부터 新築하여 未就學兒童에게 榮光의成功踏이 도라올것이며 幼稚園 講習會 育英會 또는更生한社會側의 圖書館 그!어느것이 所願이 안일가? 그러나 其中에도 大衆的으로보아 切實히痛感되는것은 大衆診療機關이다 우리綾州는 千餘戶의戶數와 近萬名의人口를 包擁하고잇는 南朝鮮中心에 잇서서 一、二、로屈指하는 有數한農村이다 그러나 醫療機關을말하자면

和順郡

一圓을 通하야 人口 十餘萬에 公醫一人에 不過할뿐이다 南朝鮮의中心地 郡의中央 또는周圍四方이 三里可量되는곳이며 四方에서 集散되는綾州에 外科醫院 治療바들 醫療機關이 업다는것은 참으로 寒心할바이다 따라서 綾州에 公醫設置의必要性을 切實히 늣기는것은 事實로서 年前當局에陳情한바 잇섯다한다 吾人은 當局에對하야 要望하노니 民衆의輿論을 等閑視하지말고 救急의一策으로 即速實現하라!

現今各道에 流行되는 猩紅熱이 猖獗될때에도 治療할 여가잇는者들은 도하고 來往도하지만

醫師를

불러 治療하기 험번는 赤手空拳의 貧民들은 治療도 밧지못하는 現狀이며 지금 우리朝鮮사람의 生活程度로 본다면 醫療機關의빗싼 診察料나 藥價를 支拂할能力을 가지지못한것도 事實이니二重三重으로 痛切히 늣기는것은 大衆診療機關이다 怨聲의 病魔는 貧富의 事情을 가리여주지 아니하니 이機關의 必要야 다시 論議할餘地가 업나니 普通治療費는 廉價로 험번는 赤手空拳의 貧民에게는

無料로

診療해주도록할 것이니 이러케 하라면 第一먼저 튼튼한財團이 必要할것은勿論 獻身的醫師의 進出을 期待하는바이다 丙子年을 마지하야 綾州의가장痛感되는所願의一端으로 이를促進하는바이다

綾州支局 一記者

平壤

京平對抗、市民氷上大會

△時日 一月十一日午前十一時

△場所 練光亭下大同江링크

◇主催 京城白狗、平壤練光兩俱樂部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000082

信川邑內에大火 平安精米所燒失 發火原因은方今調査中이나 損害額은一萬五千圓

【信川】지난팔일오전 다섯시경에 신천(信川)읍 송화목(松禾目)에 잇는평안정미소(平安精米所)에서 불이나서 때마츰 화염은 충천하야 일대소동을 이르켯는대 즉시신천소방조에서 출동하야 진화에 노력하얏스나 내부에서타든 불꼿이라 좀처럼진화를 못하다가 동여덟시반경에야 겨우진화되엇는대 손해는일만오천원가량이라하며 발화원인은 방금조사중이라고한다

地方人事

▲李光錫氏(本社安東支局長)今月十三日이 其父親[illegible]辰日임으로 [illegible]安面存浦洞自宅에서設宴招賓

氣候酷寒으로 鷄卵價格暴騰

【平壤】최근평양부내에는 계란(鷄卵)긔 늘을 당하여 계란가격의 폭등을 보게되엿다 이리유는 강동(江東)군부각지에 긔온(氣溫)이아조떨러지기 때문에 우물과 기타의 천수(泉水)가 아조동결해서 수분의보족과 다리의 먼두리가 전부 동결되여 고통하여 산란을 하지못하엿기 때문이라한다

消防手一名重傷

【平壤】칠일오전열시삼십분부내류정(柳町)동우(同友)고무공장화재 현장에 출동햇다가도라오든 평양 상비소방대「싸이드카-」집일홍가 대회정 정류장부근에서 최도근(崔都根)(二五)이 운전하는계림택시(鷄林택시)「ー」소유소형자동차를 피하려든 순간 전복되면서 소방수 교본진일(橋本眞一)(二五)은 로상에 떠러져 바른편팔에 절골을 당하는 외에 바른편가슴을 몹시 다치어 도립의원에 입원응급수당을 가하는중이나 생명이 위독타고 한다

南海邑內에서도 七戶가全半燒 原因損害는調査中

【南海】지난 륙일오후네시 남해읍내 남변동 장씨자전(南海邑內南邊洞張氏自轉車店)에서 난데업는 불이일어나 동점(同店)에서 사용점 판매하는 각종유동(各種油類)에 불이 단기여 린접한 일곱호에 불길은 옮머갓스나 소방조원의 맹렬한활동으로 동여섯시에 진화되엇는데 자전거점외 두집은 전소되고 다른네호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모양인데 발화원인과 피해수자는 방금 경찰이 조사중이라한다

歲年末警戒와 賭博團二組 十五名一網打盡

【仁川】정초긔분이 사라지기도 전에 구변할경계를시작

▲九人組賭博團=지난팔일오전 일시경 시내송현리(松峴里)팔십삼번지 오장영(吳長榮)(三〇)의집에서 투전개장중에 최진국(崔鎭國)사정길(史正吉)박권봉(朴權鳳)초노마 우창도 윤남이(尹南伊)외 이명이 체포되엿고

▲六人組賭博團=시내 송림리(松林里) 리희갑(李熙甲)의 집에서 화투개장중에 지난팔일오전일시경 리종칠(李宗七)박금돌(朴金乭) 안인숙(安仁淑)주기히(朱基熙)홍정봉(洪丁鳳)등이 체포되엿다는데 인천서에서는 정초의 긔분도 이러바리고 구변할경계를 철저시행하리라한다

主人脅迫奪金犯 大同署에被逮嚴調中

【平壤】대동서에서는 이일강북리향에서 항부일명을 인치하여다가 엄중취조한결과 이자는 강서경찰서에서 강도범인으로 수사중이든 흉한으로 판명되엿다 이자는 안주군 립석면(安州郡立石面)출생 김재경(金在京)(三六)으로 작년십일월 삼십일부터 강서군이차면오리(江西郡[illegible]次面五里) 김치점(金致漸)의집에 고용되여잇다가 십이월사일 오전한시경 주인의집부엌에서 식도를가지고 주인부부를 협박한후 현금이십원을 강탈햇든자이라한다

騷然한世上 强盜事件續出

【平壤】구년말의발부와가리 평남일대에는 강도사건과 절도사건이속출하여 인심을 흉흉케하고잇다

오일오전열시경 백주에 룡강군 신령면 오학리(龍岡郡新嶺面五鶴里) 차달근(車達根)의집에 식도를휴대한 흉한이 침입하여 자긔는 〇〇단인데 군자금을 모집하러 왓스니 제공하라고 협박한후 현금 이원오십전을 강탈도주한 사건이 잇서서 소관룡강서에서는 범인을 엄탐중이다 륙일오후여섯시경 역시강서군쌍룡면운암리(江西郡雙龍面雲岩里) 정명숙(鄭命淑)은 쌍룡우시장에서 소판돈 오십이원오십전을가지고 집에도라오든중 로상에서 강도한명을 맛나 현금전부를 강탈당하고 소관서에 급보햇스므로 범인을 엄탐중이나 아직 체포치못햇다한다

井筒ポマード

驚異! 潑剌한 整髮美에젊어지는

爽快한香氣 시원한洗髮感 養毛價豐富

定價 ¥.75 ¥.50 旅行用チューブ入 ¥.30 ¥.20

本舖 東京人形町 井筒

副業本業

小額의資本으로 專屬製造者急募集

少き資本으로一家安定할수잇는副業、本業으로 製造는遠近을不問하고 單히 紙製品의原料를供給하야 婦女子들도 簡易히製作할수잇는副業으로 製品은引受하며 取換은一年中間에萬一集하야 現金으로 買受 ... 依하여 買受할것을 契約함 ... 地方指定 ... 長期契約 ... 本店의 製品으로 ... 急務의 必要를 追到하야 ... 製造者에게 機會를 提供하야 ... 有望한 職業에 從事하기를 切望하는바이다。

大阪市西區本田一ノ十八 合資會社 千代田商事本店 電話西七三九八

製品販賣部 大阪市西淀川區海老江下二ノ五三 電話土佐堀四二六六番

支店 名古屋市中區東田町四ノ一九

强力 男性호루몬 アンドロスチン

日本總代理店發賣元 株式會社武田長兵衛商店 特約店東京小西新·島居·三共

結核性解熱劑 エルボン

金子醫學博士遺 結核療法의大寶

에루본의特有한作用은幾多의模造品이追從하기어려운點이잇다이本劑가二十餘年來變함업시世界各國의醫學界에널이賞用되고잇는所以이다。

에루본은急劇한一時的下熱을식히기때문으로經過가不良하는것가튼解熱劑와는그作用이全然달으다。于先毒素에抗拒하는白血球를增加하야階段的으로티구나健實하게解熱하야病者의體力을消耗하지안코肺스스로가治療케하는힘을나게한다。本劑는또腸窒扶斯熱、流感、肺炎其他傳染性疾患發熱에適劑다(錠劑、粉末)

大阪市東區瓦町三和ビル內 堂西バーゼル 化學工業會社日本學術部より無代郵呈

10-22

一月十日封切 每日三回午前十時半 午後一時半六時卄分 超特別大興行

◆R、K、O、라듸오超大作映畵 미리암·씨쿠파作品 아빙피치엘、엘／폴닉協力監督 壯大、妖美、冒險、怪奇、世界最大巨篇 同窟의女王(SHE) 헤덴까헤겐主演 시베리아氷原의奧地、永劫不滅의火焰이타는곳! 妖麗한洞窟의女王과英國靑年의사랑!

◆R、K、O、라듸오超特作映畵 마음의傷處 캐사린、헵번 主演 사랑과音樂의頌春譜 米國이나은最大映畵女優와佛國이나은名優뽀아이어의名君피네金、監督은北米劇場의最高權威인 닉메리、今春映畵界에밧치는名畵

◆P、C、L特作映畵 人生初年兵 宇留木浩、藤原釜足、德川夢聲、神田千鶴子、水上洽子、其他共演 (次週特別封切)로필나스의밤、카로로、近日封切。白衣行進曲、八點鐘、虛榮의市

全鮮第一映畵殿堂 團成社 電光九九

一月十日낫부터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繼映 七時부터始映

大衆料金 階上 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階下 大人二十錢 小人十錢

純粹大衆的二大巨篇公開 本版 콜럼비아社超特作珠玉篇全發聲 나는작한사람이다 監督……존·포-드

카우의一人과恰似하야世上에疑心으로艱辛히無事히되엿스며懸賞 ... 과結婚까지의善人의結婚은이러다

松竹키네마社超特作時代劇 古野英二監督作品 まぼろし峠 市川右佐衛門主演 義俠과義氣로戰猛한一人의勇士의哀傷的이면는불로비저내인波瀾風雲이急急한戰渦中에서左衛門의大活躍은

‖次週豫告‖ 漫畵森の小人 社作品 暴風雨 情炎에타오르는뜻 竹作品 水上心中

‖豫告‖ 萬古烈女春香이 그후의李道令

仁寺洞 電光一六三二 朝鮮劇場

土改事業中止외「實蹟」 高利債重壓과 水利組合經營難

④……洪鍾仁

六、水組恐慌

以上에 大略 論한바 資金運用의 方途와 國家機關의 助成이 不充分한 點으로보아 朝鮮의 土地改良事業이 農民自身의 經濟를 好轉식히기에는 넘어도 危殆하엿슴은 其後에 襲來한 農業恐慌의 暴風을 想起하지 안러래도 짐작에 남음이 잇다。本來 農業經營이 幼稚하고 資本의 魔法을 몰으는 農村에서 高利債를 뒤집어 쓰게되고 또大規模의 建設工作 一切에는 國家機關의 手를 떠나 東拓이니 土地改良會社니하는 營利會社가 代行케까지되니 水利組合의 誕生은 當初부터 資本의 重壓을 免할수업시되여 잇섯든것이다 組合員되는者 버서나기힘든 債務者의멍에를 쓰게되것이어서 아무리 長期의 償還이라한들 到底히 堪當키 어려웟든것은 當然한 當局의 計劃案을 餘地업시 蹂躪한 水利組合員側의 經濟困難에 빠지것이 不可避하엿든것을 實際로 證明하고 잇다。即水利組合의恐慌은 本來부터 內包되것과 其後의 昭和五年 一千九百萬石의 大豐을 보앗던 豐年饑饉의 壓迫과의 두가지로說明할것이다。

◇

本來부터 內包된 恐慌은 調査, 設計, 工事, 監督等의 組織에서도 볼수잇거니와 高利債의 重壓은 더욱 컷든것이다。이제 高利債로因한 水利組合의 困境을보건댄, 總督府에서는『土地改良事業의 槪況』에서 아래와가티말하엿다。

『産米增殖計劃更新前 大正十四年까지의 工事를 施行한것은 政府의 助成이 不充分하엿슬뿐 아니라 大槪 事業資金이 年八分五厘乃至九分五厘程度의 高利債務를 가지기때문에 組合員의 負擔이 大端히 過重하여 經營困難에 빠지것이 不少하엿다。그래서 大正十三年度及十四年度에잇서서는 地方公共團體資金으로서 大藏省預金部資金 各四百萬圓式融通을 바더그大部分을 水利組合에 配當하야 高利債를 借換케하엿고, 또 財政上 危急한組合은 大正十五年 計劃更新後의 組合에 比하여 아직도 顯著히 高利率이어서 다시 昭和二年 地方公共團體 低利借換資金으로融通을바든바 預金部資金 二百萬四千六十九萬圓을 水利組合에 融通하고 昭和四年度에 다시 一千百萬圓의 融通을바더 水利組合 高利債를 借換케하엿다 그러나 以上의 融通額만으로서는 借換後 아직도 平均利率八分程度의 組合이 不少하엿든터에 昭和五年의大豐과 米價慘落으로 農家經濟는 破壞的 打擊을바더 組合費負擔을 堪當치못하게되자 農民層은 組合費延納運動等의 非常手段을 取하게까지 되여 事態는 組合財政上基礎가 動搖되며 그維持管理가 困難케될뿐더러 産米增殖計劃遂行上 一大支障이 생길念慮가 잇스며 나가서는 統治上에도 影響하는바 不少하게되여 組合費徵收에 諸般救濟하며 한편으로 大藏省의 資金을 融通케하여 昭和五年엔 四百萬圓, 昭和六年엔 三四百에 亘하여 二千八十萬圓의 低資로서 成績不良한 組合의 高利債를 借換케하엿다。大正十三年以來 昭和六年까지의 高利借換資金만 累計四千五百五十萬七千餘圓에 達하엿다。』

◇

以上과가튼 高利債의 整理는 組合의 經營上으로 有利하고 同時에 組合員의 負擔이輕減되는것이어서 極히 有效한 政策임은 勿論이나 이와가튼 高利債의 整理는 經濟界의 一般金利의 推移에 따라서 當然히 잇서야할것이엇다 그럼으로 水利組合債(土地改良資金)利率이 日本內地의 資金關係와의 比較를보아도 알수잇슬뿐더러 高利債의整理傾向에 잇서서는 本來부터 一般의 低下前에 水利組合의經營上 高金利의 苦痛을 바더온것을알수잇다。이와가튼 情勢에 잇서서 水利組合의 困境은 昭和五年의 米穀界恐慌의 危期에 臨하여 그絕頂에 미처 從來의 計劃과 實施過程에 對한 根本的인 大手術을不得已하게되것이다

―(계속)―

大衆用海産物 中央物産서統制

우선第一着手로昨年末에 비웃荷受組合創立

京城市內에서 需要되는 海産物은 그數量이나 價格이 相當히 만흔터로서 日本內地人向日用海産物은 魚市場을 通하야 供給되는터이나 主로 朝鮮人需要인 大衆用海産物에잇서서는 從來何等의 統制가 업서 價格가튼것도 標準을 세우기어려웟섯는데 中央物産에서는 이에着眼하고 大衆向海産物을 될수잇는대로 統制할方針을 樹立하고 우선 그 第一着手로(비웃)生鮮統制를 시작하얏다한다。元來海産物은 資金도만히들으로 朝鮮人業者 八名으로서 生鮮荷受組合을 지난 十二月三十日에 創立하고 中央物産이나 業者들에게 生鮮을 組合員에게 난우어 販賣코잇다는데 中央物産에서 今後規模를 크게하고 將次는 大衆用全海産物에 亘하야 이러한組織化한統制를 하리라한다。

好景氣의裏面 不渡手形이激增

朝鮮人六割의多數

인푸레景氣, 土地景氣, 米價高景氣, 金融景氣를 띠든 昨年中에잇서 京城手形交換所의 不渡手形을 通해본 朝鮮人의 景況은 果然 어떠하얏는가?

×

昨年中에 不渡手形을 내어 取引停止를 當한 總數가 二百八十四名(其中 解除八名)으로 再昨年의 百七名에 比하야 六十三名의 激增을 示한 것이 첫재로 注目되며 그다음 朝鮮人關係를 보면 昨年에 百七十名의 多數에 達하야 總數의 六割이엇다

그리하야 再昨年의 朝鮮人 百七名, 總數의 五割에 比하야 一割의 激增을 示하얏다。

이에 依하야 보면 好景氣不渡手形을 通해본 朝鮮人의 一割의 著增을 示하야 朝鮮人經濟가 好景氣를띠든 反面에 實際는 얼마나不振이엇든가를보이고잇다。

×

昨年中 不渡手形으로 取引停止를 當한 사람의 月別을 示하면 如左하다

一月 二二 二月 一七 三月 一三 四月 三四 五月 二四 六月 一九 七月 二四 八月 二四 九月 二七 十月 三五 十一月 二八 十二月 二一

以上과가티 十月의 三十五名이 最多요 六月의 十九名이 最少이엇다

高周波四鑛 買收

日本高周波 重工業會社에서는 벌서부터 特殊鑛山을 物色中이던바 드되어 荒井初太郎氏 所有인 同氏關係의 江華島의 마강, 파라줌兩鑛區及 全北의 크롬, 水鉛의 兩鑛區를 買收 並委托經營하기로 되엇다

外地米生産費 臨時委員會新設

旣報=十四日 開催豫定의 米生産費査定協議會는 十五日로延期, 內閣調査局에서 行하기로되바 이번 査定은 米穀自治管理案의 議會通過를 前提로한것이만큼 그 外地米買上價格의 基準이되는것으로 特히 朝鮮側의 注視를 要하는터인데 九日農林省으로부터의 農林局入電에 依하면 査定會에는 日本內地民間側의 參加를 보리라고하며 또 臨時 外地米生産費調査委員會의 形式을 取하게되리라고 한다

이에 對하야 農林當局者의談에 依하면 그와가티 民間側의 參加를 보게되면 外地側으로는 더困難한條件이 생기게되리라고 그리고 朝鮮側에서는 矢島農林局長 山澤農産課長 石塚技師가 參席케되야 十一日午後에 出發할豫定이라고 한다。

石油配定 朝石優遇

三個月마다更新

朝鮮의昭和十一年度石油販賣配定은 昨年十二月廿八日 總督府로부터 石油統制法에 依하야 各社에 內示를 發한바에 依하면 朝鮮石油를 빼이고 內外石油會社는 一月以後 三個月까지 來年七月로부터 操業할 朝鮮石油會社는 七月以後 十二月까지의 配定을 바더 三個月마다 更新할모양인데 配定比率을 보면 朝鮮石油가 가장優待되엇다고한다

滿鐵運賃改正 朝鮮에打擊念慮

滿鐵에서는 不遠 滿洲國內運賃을 鐵路總局과가티 現在의 三等級을 六級制로 改正키로되바 이結果 砂糖은 安東, 奉天間이 一噸에 二圓十錢 新京, 安東間이 一噸에 三圓七十錢씩의 引上을 하게되야 糖業者에게는 死活問題가 될뿐아니라 朝鮮魚類綿織物類等도 相當히 高率로되고 또 滿洲産物은 從來 安東에잇서 積下料로 二十五錢이 免除되든것이 모든것에 對하야 徵收케되는대문으로 朝鮮內에는 相當한 打擊을 밧게될것이다 그래서朝鮮貿易協會에서는 그對策을 講究하야 關係方面과 協力하야 그阻止運動을 하고 朝鮮內業者의 擁護에 努力하라고 計劃中이라고한다

京畿江原兩道의 트럭合同成立

三十日에創立總會

客年末 小委員에 依하야 合同의細目協定을마친 京畿, 江原兩道에亘한 추럭大合同은 드디어 今月三十日 創立總會를 開하게되엇다。新會社는 京江陸運株式會社라 稱하고 資本金五十萬圓 四十五萬圓拂込으로 決定하얏든바 一日부터 營業을 開始하기로되엇다 新會社의 重役은 社長以下 取締役八名 監査役三名으로 本店을 春川에置하고 支店은江陵, 京城, 出張所는 金化, 洪川, 橫城, 原州, 利川, 大和의 六個所에 設하기로되엇다

米穀倉庫建設

京城府에서計劃中

京城府에서는 八日 午後二時부터 産業調査第二部會를 열고 米穀倉庫에 關한件에 對하야 硏究한結果 京城에 米穀倉庫設置는 目下의 急務임으로 鐵道局이 不遠 南大門新炭市場을 客貨車處理上 往十里로 옴기게할 計劃이 잇서 鐵道局에 要望하야 同新炭市場 其土地의 讓渡를 바더가지고 倉庫를 建設하야 需給을 調節키로 決定하엿다 이要望이 實現케되면 府內自體가 이것을 經營치 안코 水産市場과가티 民間에 代行케할것이라고 한다

市中金價低落

京城市中 金價는 九日에 賣一匁 十一圓六十錢으로 十錢低이고 買는 一匁 十一圓五十五錢으로 不變이엇다

經濟界消息

○朝鮮電力會社의 小田高森電力部長, 村田土木部長兩氏는 八日 入京하야 總督府와 協議한뒤 今月中旬 現場에向하야 出發하고 發電工事에 着手키로되엇다고

殖産銀行의 商業金融進出

普銀에壓迫을加重

殖銀의 十八銀行 朝鮮內支店買收는 朝鮮內金融統制上의 見地로보면 確實히 一進展으로 볼것인데 이一面 朝鮮內金融界內部의 普銀은 드되어 特殊銀行의 壓迫을 밧게될것으로 그推移는 重視되다 即十八銀行의朝鮮內支店 業務讓渡는 殖銀으로서는 商業金融에의 本格的進出이라할것이며 特히 問題되는것은 京城府內의 十八銀行은 三支店을 갓고잇서 假令 殖銀이 二支店을 出張所乃至 派出所로 存置할때는 龍山方面의商業金融은 殖銀에 거이掌握되어 이點 普通銀行에 一大脅威가될 것이다 이리하야 殖銀의朝銀의日本內地銀行支店合倂은 朝鮮內의 普銀對特殊銀問題에 다시 새로운 一問題를 加重하는것이라고보인다

十八銀行行員 引繼는極少數

殖銀의 十八銀行의 朝鮮內九支店讓受에 伴하야 十八銀行支店의 行員(朝鮮內九支店約一百名)은 殖銀의 形便으로必要한 行員만 引繼하게될 模樣으로 아마 百名內外는 犧牲者를 내리라고보인다

重要輸出品取締法 今議會에提出

商工省全面的調整

【東京電話電通】 商工省에서는 벌서부터 日本輸出貿易의 圓滿한 進展을 圖키爲하야 省令으로 重要輸出品取締規則을 公布하고 輸出檢査를 施行하고잇든바 今回이를 보다더 效果的으로하고저 右省令의 取締規則에 代身하는 重要輸出品取締法을 制定하야 今議會에 提出하기로되엇다 右는 從來의 省令規則만으로는 到底히 現今과 如히 複雜化한 貿易界에 適合하지못하야 輸出統制施行上 遺憾된 點이잇슴으로 新法令에 依하야 萬全을 期하려는것으로 同法案의 重要骨子는 大體

一、稅關內의 輸出品取締에 法的根據를 與하는 同時에 大藏省과 協力하야 取締의 强化를 圖할것

一、이 目的을爲하야 罰則規定을 現在以上으로 嚴格히할것

의 二點으로 商工省에서는 이正하기로되엇다 一方農林省에서도 輸出水産物取締法의 一部修正을 하고 또 大藏省에서도 稅關內에 專任取締職員을 置하는等 商工, 大藏, 農林三省相互呼應하야 日本輸出貿易의 全面的調停에 進出하기로되엇다

朝銀券二億臺割

比最高記錄三千三百萬圓縮少 滿洲로부터撤收進捗

昨年十二月二十七日二億二千九百八十八萬五千圓에까지 最高記錄을 示하야 大膨脹이어던 朝鮮銀行券發行高는 新春에 入한後 年末資金關係가 업서진데다가 滿洲의 朝銀券撤收가 進捗됨에 伴하야 漸減趨勢이더니 八日經越 發行高는 드되어 一億九千七百八十七萬七千二百六十五圓六十錢으로 大縮少되어 昨年末 最高記錄에比하야 三千二百萬圓의 激減이엇는바 今後도 續減豫想이라한다

"朝鮮內織物需要"

其中人絹需要激增

◇……需要에對한朝鮮生産三割

【總督府商工課調査】 朝鮮內織物需要는 逐年 增加되는 傾向으로 昭和十年(豫想)은 四億七百六十一萬餘方碼 一億一千五百九十二萬餘圓에 達하야 昭和九年의 三億七千二百十二萬餘方碼에 比하야 三千五百四十九萬餘方碼의 增加, 다시 同八年 三億五千二百七萬餘方碼 九千百七十萬餘圓에 比하면 數量에잇서 一六% 金額에잇서 二六%의 增加인바 이것을 各種織物別로 보면

(一) 綿織物은 昭和八年을 基準(一〇〇%)으로한 需要指數는 同十年은 九九% 多少 減少되고잇는데 그 原因은 最近 一部高級加工綿布가 人絹織物로 代置되고 이밧게 對滿洲輸出이 困難하게된 結果 日本內地로부터의 移入이 減少되것과 그 密輸出은 數字上으로 알수업는만큼 朝鮮內의 需要가 人絹때문에 減少된 結果라고한다

(二) 麻織物은 昭和八年(一〇〇%)에 比하야 十年의需要가 減少(九六%)되것과 昨年輸入品의 在庫가 만혓든 때문에 輸入이 減少된結果라고한다

(三) 絹織物은 昭和八年(一〇〇%)을 基準으로한 需要指數는 九年 一三三% 十年 一二三%로 漸增하야 十年에잇서는 九年보다 增加되엇스나 九年以前의 輸出中 大部分이 人絹임으로 八年을 基準으로한 需要指數는 九年 一四四% 十年 一四四%로 不變의狀態이엇다。

(四) 人絹織物需要는 最近增을 보아 昭和八年을基準(一〇〇%)으로한 需要指數는 九年 一二三% 十年 一三三%로 激增되엇다。

(五) 毛織物은 漸次 需要增加를 보아 昭和八年을 基準(一〇〇%)으로하면 九年은 一一二% 十年은 一三六%로需要가 增加되엇는데朝鮮內毛織物의生産은 거의 업고 最近 毛스판의 生産이 多少잇스나 그대지 問題가 안되다 今後生産獎勵의 必要가 잇다

以上各種織物의 總需要高에對한 種別重要比例는 綿織物 八年七六% 九年七三% 十年六五%로 漸減의傾向, 麻織物은 八年七% 九年七% 十年六% 絹織物은 八年三% 九年四% 十年四% 毛織物은 八、九、十年共히 二%로 不變의狀態이다 다만 人絹만은 八年 一二% 九年一四% 十年二一%로 激增되엇다 이것은 朝鮮人生活水準이 漸次 고급산人絹에로 低下되는 것을 反映한것이라고하겟다 그러고 生産方面에 잇서 이를보면

(單位千方碼)

	昭和八年	同九年	同十年
綿織	二七六、八六六	二九〇、九六四	二三三、四六五
麻布	二八、五九五	二七、一三三	二七、四六三
絹織	五、二一七	七、〇九九	六、三六〇
人絹織	三、五四〇	六、一〇七	二六、一四一
毛織	(毛스판若干)		

前記 朝鮮內各種織物需要에 對한 朝鮮內生産은 總平均三割에 不過한 狀態로 特히人絹과 如한 것은 朝鮮內에 現在人絹工場이 四、五個所에 不過할뿐아니라 目下朝鮮需要의 六分一밧게는 生産不能의 狀態로 商工課에서는 今後 此種工場의 朝鮮內增設을 獎勵할 意向이라고한다

株式 少戾後에 更弛

[九日]

前場少戾 鐘新反强에 相俟하야 賣込警戒、押目買散見으로 今前場은 諸株一齊 强調이엇스니 即昨後引에 比하야 東新八十錢高의 百六十五圓丁、日産四十錢高의 七十四圓四十錢、鐘新不變인 三十圓六十錢에 各大引、鐘新은 二圓高인 百五十四圓丁 一本이엇다

後場下弛 後場은 東新百六十五圓二十錢 日産七十四圓二十錢 鐘新百四十九圓丁 朝新三十圓七十錢에 保合寄後下弛不勢로大引

樂觀反動市勢

東新은 採算만 基準으로하는 것이아니오 人氣本位이만치 高價에서 十五圓押이엇스니 그만인지 또는더떠러저야할지 氣迷가업지안흘터이다

一、軍縮會議는 日本에形勢가去益不利케되어가고

一、議會를前로 再開劈頭解散必至論이 만허 政局動向이注目되고

一、北中形勢는 日本進出에 對하야 英國의注意를 喚起코저 하는運動이猛烈하며

一、米國의 A、A、A違憲判決로今後景氣前途가 注視되고

一、依然한增稅念慮

一、赤字公債消化力如何도 依然安心마할수업다

從하야 軍需工業中心의 雜株物色買氣以外는 投機인 東新等은 昨年末樂觀反動、買安心의反對로 整理가 徹底하여야할 形勢로보이는바 果如何?

諸株事情不一

▲日産=日産은 低價에서 半年以上이나 揉合하고 減配까지 充分히 織込하얏더니 더떠러질 餘地가업슬뿐아니라 비록지금은 低價모양이지만 찰아리 押目買 一貫으로 버티어보는것이 조흘것갓다

▲鐘新=東京短期鐘新은 昨年七月末의 百七十圓七十錢에서 年十一月初의 百六十三圓까지五十三圓二十錢 棒上되고서 겨우 十五圓가량 떠러젓슬뿐인데다가 原價高, 朝紡低配 致命的原因이잇스니 아모리 내이버린다드래도 올는가보다는 徹底한 反動이잇슬것갓다

▲東新=東新은 昨年九月부터 十一月까지 滿三個月好材料만떠들고 國威伸長이란것까지 지나치게 떠들고서 뛰어서 東京短期取組가 四十二、三萬株에 達하얏스니 이超大量의 減殺가 아니여서는 大掃除가잇고야말것이 아닐가?

軍需工業株好勢

東新整理를遷延

軍縮會議가 當然決裂될것으로보아 世界的軍擴時代到來가 必至의形勢일것갓고 米國未曾有의大國防費計上、北中自治政權을 圍繞한中國의反對態度로因한 日本의緊張으로몰지라도 軍需工業株에對한 買氣는 逐高調되어가는 터인데 如斯히 局部的일지라도 雜株가買進되는만큼 東新도買方에 未練이남어잇서서 整理를 遷延케하는 一因이되어잇다

◇實物株前場取引

▲浦賀는러닝新高 ▲三菱重工業 [illegible]

市場六感

株 市勢는依然整理途中으로서 비록 前場은 少戾나 미듬性업는것▲오늘은景氣조흔소리한 마듸…東洋景氣滿喫으로 重工業全盛을證明한것은 石川島造船의 昨年下期빠나스가 別整六十倍인것만보아도 짐작할일▲軍縮會議決裂이면 東新은五十圓高란 壯談을하는사람도잇지만 너무지나친觀測이아닌가?▲春高豫想이 아즉도 업서지지안하서 低價는사라고하는것이禍根 이때문에整理가 遲延될뿐인즉 總校의 慘落이잇고야말것이아닌가? 그러치안코서 軍縮會議決裂이면 五十圓高라고 멋기만 하다가는 큰코닷치기 쉬울듯 ▲東株守衛의『易』에 依하면 『東新 一二月 低保合、三四月 好勢後急落、五六月 波瀾裡底入、七八月强調、九十月逆轉崩落、十一、二月好勢이나 不絕으로年末平凡』이라고 작난삼어두고 봅시다

米 當地先限의表面取組는 아즉 一萬石未滿으로 兩方共히 腰入的行動을 加하지안코 挑戰的態度만을 取하고잇다 今後의決戰이果如何?▲金太와 丸福의正米部方針은 買米를抱擁하고잇는만큼 買彈戰에出脚한모양이나 그結果가 어떠할지 壯談으로할時期▲一朝實彈의威脅을 밧는다할지라도 此는一時的 現象에止하지 안흘가한다 ▲그理由는 大中農家를不問하고 平均賣又는賣惜方針으로米價의瓦落을招來하지안흘範圍에서가진策略을함으로써이다 ▲果然農家가어느時期까지既定方針대로 나간다하면 米價는於焉間騰勢를 助長하고말모양▲當局賣方으로서의 가장有力側인 田中貞二派는當限의渡米를하는것보다 中先으로乘替라는것이有利하다하야 連日乘替賣를하는 光景이라나▲此渡米難의 嫌이 不無한것이 一因인모양인데 今日의 渡米難이 中先限이라고 容易할理가 업다고도云云 果如何?

當地仕手觀

아즉難兄難弟

當地先限의 表面取組는 六對三의上短下長인 價이八、九千石으로 兩方共히 取組를왓는中임으로 아즉어느便으로 기우러질이라고斷言키難하나 그러나 仕手의關係를窺하면 金太의正米部로부터 中先의直하야 買米緊의買物을擁抱하고 最後一戰을 決하려하는態度이며 其外 丸福店에서도 相當한買物을 抱擁하고實彈을 蒐集하는光景이오 그反映으로는 丸石店을本營으로한 全州某有力側의 萬餘石賣物과 日本內地止米側의 賣物이 相當히 潛在하야 買東의威力을 抗拒하고잇서서 難兄難弟의 形勢를보이고잇다 果然 今後의結果가 마치 何如할지는몰으나 目前의 現象으로보아서는 마치 昨年의春季와如히 一朝實彈의威脅을 受치못할뜻도하나 그러나 産地農家의賣惜에依하여보면 大中農家를不問하고 平均賣의方針으로 米價의反落을 招來하지안흘程度에서 賣出하는關係上 昨年과如히 無謀히暴落은 許하지안흘뜻하다고一般은觀測하고잇다 果如何?

朝米 期 買氣漸加 昂進

前場小高 昨後場阪地三十一圓七十一錢止와共히 二十九圓五十一錢에 場을止한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一圓七十一錢인 昨止同價의報를擔하고 二十九圓五十八錢인 意外七十錢高로 場을始한後 阪地七十一錢의 四番同價로 結局七十六錢의最高로 止場함을伴하야 五十三、四錢에서 揉合하다가 結局五十八錢에場을止하엿다

後場昂進 後場은 二十九圓六十四錢에六十五錢高로 强調이고 始場後六十八錢三本同價로 五節七十一錢에 올랏스며七十三錢에止場하다

東京國債市場

甲 五分利 一〇五、八〇

佛貨四分利 一八七、〇五

農村의消息

大多數가賣惜

米穀統制法이實施된以來 農村의經濟가 比較的潤澤하엿슴은 正租의市勢가 絕對低落을 許하지안는 만큼 事實이反證하는바이나 昭和十年度 産米政策에對하야는政府로부터 最高公定米價를 昨年보다 一圓七十錢이나 引上한바잇거니와 此를窺한農民의 態度는 又一層頑强하야 絕對賣惜方針을 取하고잇다 더욱이昨年은棉花가 豐作이엇고 兼하야棉花의市勢가 騰貴함에딸아 中農以下에 일으기까지 棉花를貯抑하야 모든農費에充當하고 自作米는依然掬藏하야 高米價時代의到來를 期待하고잇다한다 그掬藏의쌀이結局市場으로出來할것만은 事實이니 그러나 爲先平均賣의方針을取하면서減穀期에 援하려하는 計策임으로例年과如히 産地의 出廻가一朝旺盛하야 實勢의 壓迫을加하기까지에 至하지는 안흘것갓다고 農村의 消息을 傳한다 今後果如何?

各地正米

◆堂島前場賣買

▲賣方=東京側地場正米側 田中 ▲買方=神戶側 株式側 實物側 中國側

京城强調 定期側의 準備買豫想으로 氣配一等高로 二十錢高化인 九仁三等二十八圓八十五錢 四等二十八圓五十錢 一等白米二十一圓丁

仁川昂騰 定期는依然小浮動保合이나 昨夕米阪神으로부터 積出應이 丸仁三等二十八圓八十五錢 四等二十八圓五十錢 一等白米十一圓九十五錢

釜山不變 市場出廻五千叺 定期保合으로日本內地注文이不振이나 朝米採算側의買漁와産地强調로 氣配三等二十八圓五三八 叺角丁三等二十八圓九十錢 四等二十八圓六十五錢 一等白米十一圓十錢

大邱不動 繼續하야期面沈靜으로閑散裡保合인 角丁三等二十八圓六十錢 四等二十八圓三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六十錢

群山保合 産地가 底堅한程度로 定期의凡調를보고 買氣稍漸化치안코 前日同樣의市勢로極히小量의 取引이잇섯다 三等二十九圓 四等二十八圓八十五錢 一等白米十四圓

木浦小締 産地出廻는 거의 的賣物薄으로 取引中絕狀態이나 食人되고 積止援近이나마 極端 [illegible]

今日財界 (九日)

◆米 (單位圓)

仁川米 [illegible]

◆市中金價 [illegible]

◆株 (單位圓)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ゴム現 [illegible]

▲帝國火藥 [illegible] ▲電化新 [illegible] ▲人造肥料 [illegible] ▲人造半毛 [illegible] ▲帝麻新 [illegible]

朝鮮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金·白金·銀 賣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壹〇番地(小廣橋側)
電話本局三一二六番
振替京城壹五四番
金 銀引換販賣 送料先方 地方註文 歡迎

玉蜀黍購入

五圓四拾錢也(正味百斤付)

大同江驛着上等麻袋一枚共

右價格으로各地取扱店及平南各産業組合平北寧邊産業組合經由多量買入합니다

平壤府船橋里(大同江驛前)

日本穀産工業株式會社

國際 九日

◆海外經濟 [illegible]

◆正貨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東京手形交換高 [illegible]

穀物 九日

◆大阪金利◆ [illegible]

◆內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商品 九日

◆京城綿糸布市況◆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日本麥粉市況◆ [illegible]

◆鰮油冲價◆ [illegible]

◆鰮搾粕冲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産市況◆ [illegible]

株式 九日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引◆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鐵定期賣買高◆ [illegible]

◆鐵定代引日步◆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取引◆ [illegible]

期米 九日

◆朝鮮內各地期米◆ 釜山 大邱 群山 木浦 [illegible]

◆取引米總賣買◆ [illegible]

◆朝取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引◆ [illegible]

◆大阪市中正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商品 九日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